

왕부지의 中華의식, 그리고 移住와 문화융합에 대한 이중성*

이 춘 복**

목차

머리말

I. ‘夷狄’과 ‘中華’를 구분하는 諸기준

II. 내지 중국인의 변경지역으로 이주와 문화융합

III ‘이적’의 변경이내로의 유입 반대와 문화배척

맺음말

머리말

지난해 중국 국가문물국은 4년 반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만리장성은 西端 감숙성 嘉峪關에서 東端 하북성 山海關까지라는 기존 학계의 정설을 뒤엎고, 장성의 길이를 동서로 두 배 이상을 확장해 현재 중국 북부 전 지역에 걸쳐 장성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발표되자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의 만리장성 확장에 따른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토론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다.¹⁾ 지난해 12월에는 이와 같은 조사보고서를 유네스코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413-A00013).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교수

1)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의 역대 長城발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동북아역사재단,

에 공식보고 함으로서 국내의 학계에서 중국의 만리장성 확장에 따른 역사 왜곡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실 중국정부와 중국학계에서 만리장성 확장론을 펼치는 이유는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역사에서 찾으려는 것에 있는 듯하다. 특히나 만리장성을 전통시대 국경선으로 보는 시각에 맞추어, 장성의 확장을 통해 전통시대 강역의 범주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秦漢 이후 전통시대 대부분의 한족문인이 주장했던 ‘華夷론’ 혹은 ‘중국’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인식 하에 전통시대 사상이 가운데 중국의 공간의 범주와 변강 지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인물을 찾고 있던 중 명말청초시기 왕부지를 주목하게 되었다. 본래는 그의 중국 범주와 변경지역에 대한 구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려 하였지만, 이들 공간적 이해를 위해서는 이 공간을 둘러싼 중국과 주변 族群(ethnic groups)의 관계설정, 내지 중국인의 변강으로의 이주와 이적의 변강이내로의 이주·유입 등의 문제는 물론이고, 이들 지역에서의 중국과 이적의 문화융합과 문화배척 등의 문제를 본의 아니게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 연구대상이 확대되게 되었다.

국내의 왕부지의 중화사상에 대한 연구성과는 비교적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두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0년 이전 왕부지의 중화사상 연구는 중국대륙과 대만 등지에서 주도적으로 전개되었고, 일본²⁾의 齊藤禎과 한국³⁾의 권중달 등의 연구

2012.

- 2)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水原重光著, 『王夫之의民族思想』, 『大分大學教育學部研究紀要』(제3권 제5기), 1970, 1-14쪽; 齊藤禎著, 『王夫之의「華夷」思想について』, 『山口大學文學會志』(제41기), 1990. 155-174쪽.
- 3) 권중달, 『王夫之의 史論』, 『중앙사론』(제2집), 1975. 78~83쪽. 이 글은 왕부지의 사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이 가운데 제3장에 해당하는 『華夷論과 中華的民族主義』는 본 논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이 논문은 후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中國近世思想史研究』(중아대학교출판, 1998, 168~179쪽)에 수록하였다. 1970년대 권중달 선

자들을 대표로 하여 간헐적인 연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이 시기 애국주의 교육이라는 정치적 성격이 있는 왕부지의 중화사상을 제외하고⁴⁾, 학술적인 논쟁거리가 된 것은 왕부지 화이관이 만년에 변화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이다. 명말청초의 사상사 중에서 왕부지(1619~1692)의 사상사적 위치는 고염무, 황종희와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적 시각을 평가할 때, 왕부지는 고염무와 황종희가 정복왕조인 청왕조의 통치를 묵인 혹은 인정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청왕조를 시종일관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⁵⁾ 그러나 왕부지의 만년에 배타적 중화사상이 완화되었다는 陸復初 등의 주장이 1980년대 제기 되기도 하였다.⁶⁾ 이 연구는 만년 왕부지 중화사상의 변화로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기준과 반청에 대한 배타적인 입장이 모두 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왕부지가 만년에 생활 습관이나 감정상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의 『독동감론』 등 만년 저작에 나타난 화이관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⁷⁾ 왕부지 중화사상 연구의 또 다른 주된 내용은

생의 연구는 국내에서 왕부지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왕부지의 화이관과 중화적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구도를 잡는데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왕부지 화이관의 구성요소인 지역·기질·문화·혈통적 차이는 물론이고, 중화와 이적 사이에 문화적 융합불가 및 상호불가침 원칙에 대한 논급을 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제기된 왕부지 화이관의 구성요소와 문화융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2000년대(우심화 논문 참고) 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화이관의 구성요소와 문화융합 및 문화배척에 대한 일부 논의는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다.

- 4) 陳家鼎, 「王船山愛國主義思想論略」, 『湘潭大學學報』(제1기), 1986, 88-91쪽; 彭大成, 「船山愛國主義的特點及其影響」, 『船山學報』(제2기), 1984, 64-68쪽; 李壽章, 「王船山的愛國主義思想探析」, 『華中師範大學學報』(제2기), 1994, 35-39쪽; 徐泰來, 「船山是愛國主義者」, 『船山學報』(제2기), 1984, 56-58쪽.
- 5) 이에 대한 연구로, 聶守忠, 「談船山對民族問題的看法」, 『衡陽師專學報』, 1986; 陳遠寧, 『中國古代政治觀的批評總論-王船山政治觀研究』, 湖南出版社, 1992, 264~268쪽.
- 6) 陸復初, 『王船山學案』, 湖北人民出版社, 1987, 2쪽; 宮哲兵, 「試論王船山晚年民族觀王夫之」, 『求索』(增刊), 1982.

그의 화이관의 주된 내용이 지리환경이나 아니면 지리환경 보다 문화적 요인을 더 강조하였냐에 대한 논의이다. 다만 이는 역사학계에서 논의된 것이라기보다는 철학분야에서 논의된 주제였다.⁸⁾ 최근 이에 대한 논의 가운데 어느 한쪽을 강조하기보다 왕부지의 중화사상은 문화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공간적 지역적 요인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견해라 할 수 있다. 2000년 이전 연구성과는 왕부지 중화사상 속에 들어 있는 공간·혈연·기질·습관·문화 등 제반 요인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2000년 이후, 왕부지의 중화사상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⁹⁾ 이 시기 왕부지 중화사상연구에 하나의 진전은 2000년 이전

-
- 7) 朱榮貴, 「王夫之『民族主義』思想商榷權」, 『中國文哲研究集刊』, 1994, 524쪽 참고; 우심화, 「試析王夫之的『華夷觀』」, 朱誠如, 『明清論叢』 제5집, 2004, 392쪽 수록.
- 8) 대륙 학자들은 대부분 왕부지 화이관의 중심사상은 지리환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陳遠寧과 張岱年, 『中國古代政治觀的批評總論-王船山政治觀研究』, 引言(5쪽), 序文(1쪽). 역사 분야 연구로, 胡發貴, 「王夫之夷夏觀」, 『學海』, 1997가 있다. 이에 반해 문화적 요소를 강조한 연구성과로는 대만의 朱滋源, 蔣秋華, 朱榮貴 등, 「王夫之民族思想重觀」, 『哲學與文化』(20권제9기), 1993; 朱榮貴, 앞의 논문, 529쪽 참고.
- 9) 2000년 이후 중국 대륙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劉新春, 「王夫之“夷夏說”的精神內核」, 『船山學刊』(제4기), 2003; 胡發貴, 「王夫之夷夏觀新論」, 『船山學刊』(제1기), 2005; 張學智, 「王夫之『春秋』學中的『華夷之辨』」, 『中國文化研究』, 2005; 劉立夫, 「王夫之夷夏之辨與民族愛國主義」, 『衡陽師範學院學報』(제5기), 2010; 莫秀珍, 「王夫之的民族文化觀」(湖南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등을 꼽을 수 있다. 2000년 이후 대륙연구의 특징은 왕부지의 중화사상의 지리환경적인 공간적 구분을 강조하면서, 왕부지의 공간적 구분이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일적다민족국가의 영토개념과 서로 위배되는 것에 곤혹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왕부지가 구분하는 공간·종족·문화·기질·풍속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내연구로는 우심화의 연구 외에, 안재호(『왕부지철학』, 도서출판 문사철, 2011. 485~502쪽; 안재호, 「王夫之의 夷夏觀 試探」, 『동양철학연구』 31 2002년)의 철학분야에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연구 가운데 『왕부지철학』 제12장에 수록되어 있는 「야만과 문명: 오랑캐와 중화의 구분」이 왕부지의 중화사상에 해당한다 하겠다.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글은 저자가 2002년에 발표한 것을 수정하여 반영한 것이다. 저자는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공간·예교·義利 세 가지 기준을 꼽고 있다. 문제

에 제기된 왕부지 중화사상의 제반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는 한국의 우심화¹⁰⁾와 대만의 蕭敏如¹¹⁾의 연구이다. 이들 연구가 가지는 이 시기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은 왕부지가 쓰고 있는 이적개념이 공간적으로 구주라는 중국 이내이고, 그가 말하는 『춘추』에서의 이적과 그 후에 등장하는 이적이 서로 상이한 이적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왕부지 중화사상연구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다준 의미 있는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우심화의 연구는 왕부지가 『춘추』에서 언급한 용적을 유민으로 보았지 이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과 ‘구주’이내에 거주하는 용적을 모두 ‘中國之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우의 논문 374쪽). 이를 바탕으로 이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공간과 문화적 차이를 주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왕부지가 주장한 이적 방어정책인 이적의 경내이주 방지, 이적과의 결혼 반대, 이적과 결탁 등 본 논문에 유익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우의 논문, 377~386쪽). 최근의 연구성과인 蕭敏如의 연구도, 우심화와 같이 왕부지의 중화사상에 선진시대의 이적과

는 왕부지가 이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지 위의 두 요소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왕부지는 선진시대의 이적과 진한이후의 이적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권 연구로 Mingran Tan(Crisis and Hermeneutics: Wang Fuzhi's Interpretation of Confucian Classics in a Time of Radical Change from Ming to Qing Dynastym, University of Toronto, 2010)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박사학위논문 일부분(pp.249~254)에 중화와 이적에 대한 논의를 야만과 문명론의 시각에서 전개하고 있다.

- 10) 우심화, 『清初抗清漢人の華夷觀研究-以王夫之、顧炎武、傅山爲中心』 북경대학박사학위 논문, 1999년, 12~43쪽. 우심화, 「왕부지의 華夷觀」, 『신학과 선교』 제3집, 1999, 148-213쪽; 우심화, 「試析王夫之的“華夷”觀」, 『明清論叢』 제5집, 2004년, 374-398쪽 수록. 1999년의 논문은 학위논문의 왕부지관련 편장을 논문으로 제출한 것이고, 2004년 논문은 앞서 발표한 논문 대해 문구를 수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2004년에 발표한 논문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 11) 蕭敏如, 「清初遺民《春秋》學中的民族意識——以王夫之、顧炎武爲主的考察」, 『臺北大學中文學報』 제5기, 2008, 193~232쪽.

명청시대의 이적의 공간적 범주가 서로 상이한 점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소의 논문, 201-202쪽). 그러나 이 두 연구에도 여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왕부지의 중화사상의 구성요소가 기존연구에서 주목한 공간과 문화, 그리고 혈통에만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보다 더 많은 요인이 포함되고 있는지? 만약 더 많은 요인이 있다면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기존연구에서 왕부지의 공간적으로 구주를 기준으로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였다면, 고대 중국이후 논쟁의 소지가 있는 구주에 대한 공간적인 범주는 어떻게 규정하고 중국 고대에 어느 시기부터 이것이 적용되는지? 기존연구에서 왕부지가 말하는 『춘추』에서의 이적과 그 후의 이적을 이미 관찰하였다면, 이 이전과 이후의 시간적 시점은 어디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춘추』에 등장하는 이적에 대한 교화와 이주 등에 대한 왕부지의 입장은 무엇인지? 왕부지 중화사상에서 혈통적 요인을 인정한다면, ‘族類’라는 요인 외에, 이적왕조에 대한 賜姓과 성씨 사칭 및 혼인 등은 종족의 혈통성과 관계가 없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질문은 기존연구에 대한 필자의 문제인식이자,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의 검토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들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 왕부지의 중화사상이 청말 민족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사실 왕부지의 중화사상은 고염무와 황중희와 같이 명나라 遺老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평가되거나, 도식화하여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¹²⁾. 이러한 경향은 왕부지가 명의 遺老로서 顧, 黃과 함께 이민족인 청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항청운동에

12) 명말청초의 遺老들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5.4신문화 운동 이후 출간한 양계초의 『清代學術概論』, 『梁啓超全集』(5책), 北京出版社(이하 『양계초전집』약칭), 1999년, 3074~3076쪽 수록. 이 외에 최근 명말청초 遺老의 만청 연구로인 우심화(앞의 논문)와 대만학자인 蕭敏如(앞의 논문)에서도 보인다.

참여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왕부지의 정치사상은 청말 지식인들에게 근대 서구정치사상, 특히 근대 민족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전통적 사상자원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청말 혁명파인 劉師培는 그의 민족주의 저서인 『攘書』에서 “船山(왕부지) 선생은 이적이 중국과 그 부류가 같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스스로 이적을 구분하고 끊지 않게 되어 땅의 밧줄(地維)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¹³⁾라고 한 명말청초 왕부지의 언설을 근대 민족주의에 연결시키고 있다. 같은 혁명과 사상가인 장태염은 “衡陽者(왕부지의 호)는, 民族主義의 스승이고, 餘姚者(황중회)는, 立憲政體의 스승이다”¹⁴⁾라고 직접적으로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왕부지를 근대 민족주의의 스승으로 추대하고 있다. 청말 지식인들이 이처럼 왕부지의 중화의식을 인용하는 것을 목도한 양계초는 『청대 학술개론』에서 이를 “『讀通鑿論』·『宋論』에는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어, 근대 학자들이 읽히고 배우기를 좋아하였다”¹⁵⁾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왕부지의 중화사상은 청말 근대 지식인들의 근대적 민족주의 형성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여타 명말청초의 사상가들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왕부지의 중화사상은 顧, 黃 등 당시의 華夷觀과 다르게 근대적 민족주의와의 가교역할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근대 정치사상을 명말청초의 정치사상과 밀접한 관련성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시각은 앞서 언급한 장태염, 유사배, 양계초 등 근대 지식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오늘날 전문적인 동서양 연구자들인 侯外廬와 蕭公權과 일본학자인 미조구치 유조(溝口

13) 劉師培, 『攘書』, 朱維鈺 편, 『劉師培辛亥前文選』, 三聯書店, 1998, 14쪽.

14) 章太炎, 『王夫之從祀與楊度參機要』, 湯志鈞, 『章太炎政論選集』 상책, 中華書局, 1977, 427쪽.

15) 梁啟超, 『清代學術概論』, 『양계초전집』 5책, 3075쪽 수록.

雄三) 및 국내의 民斗基 등으로 대표되는 관련 연구자들도 명말 청초의 사상가인 황중희, 이옹(李顥), 당견(唐甄), 왕부지 및 고염무 등의 정치사상을 근대적 의미의 민주사상이나 민권사상, 혹은 민족주의, 지방자치 및 계몽사상으로 분석하거나 평가하였다.¹⁶⁾ 최근 대륙학자인 鄧樂群과 미국 학자인 Stephen R. Platt 등 역시 왕부지의 중화사상과 중국 근대 민족주의와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¹⁷⁾ 바로 이러한 점에서 명말청초의 정치사상사에 대한 연구는 물론, 본 연구의 주제인 전통시대 왕부지의 중화사상과 근대 민족주의의 개념 및 민족의 구성요소의 계승관계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족개념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비교적 많이 축적되어 있다. 민족 관련 기존 연구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민족을 고대로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고 전근대시기에서 그 역사적 근원을 찾아 연속성을 강조하는 원초론(Primordialism)적 연구¹⁸⁾와 민족을 근대적 산물로 간주하는 ‘도구론

-
- 16) 侯外廬와 蕭公權, 金耀基는 양계초와 같이 명말청초 황중희 李顥 등의 민본사상을 ‘근대 민주사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侯外廬, 『中國思想通史』 第5卷, 155~177쪽, 295~300쪽; 蕭公權 著 최명·손문호 등 역, 『中國政治思想史』, 서울대학교출판부(2004), 90~981쪽 참조. 溝口雄三, 『中國民權思想의 特色』,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中國現代化論文集』,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1991), 343~362쪽 수록. 미조구치 유조는 중국의 민권사상의 특색을 명말청초의 반군권, 청말시기 지방분권과 신해혁명시기 국민권 및 민생권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중국 전통시대의 ‘封建’과 ‘郡縣’에 대한 논의와 ‘봉건’의 근대적 변용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연구로 민두기, 『中國의 傳統的 政治像-封建郡縣論議를 중심으로』; 『清代 封建論의 近代的 變貌-清末地方自治論으로의 傾斜와 紳士層』(민두기, 『중국근대사연구』, 一潮閣(1973)년에 수록) 등이 있다.
- 17) 鄧樂群, 『黃書』 與辛亥革命, 南通師範大學學報, 2001. Stephen R. Platt, *Hunanese Nationalism and the Revival of Wang Fuzhi, 1839-1923*, Yale University, 2004. 이외에 왕부지의 중화사상과 근대 민족주의와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로 劉立夫(앞의 논문, 1쪽)와 劉新春(앞의 논문, 18, 21쪽)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인 최근 두 편의 논문에서는 연관성만 논급되었지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되어 있지 않다.
- 18) 중국 대륙의 대부분 민족주의 학자들은 중국의 민족 형성에 대해 원초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馬大正 지음/조세현 역, 『중국의 국경·영토 인식』 20

(Instrumentalism)¹⁹⁾적 연구를 들 수 있다. 필자는 ‘민족’이 고대로부터 존재해 온 원초적인 요인을 간과할 수 없지만, 근대에 생겨난 역사적 구성물, 즉 영토주권, 국민 국가 등 도구론적 시각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 전통의 華夷론은 근대적 민족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연속성)는 필자의 시각은 도구론적 시각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통 시대 화이론에는 영토주권과 국민국가와 같은 근대적 요소가 결여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초론적 견해와도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청말시기 양계초·왕정위·엄복·양도 등 근대지식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근대적 ‘민족’에는 정치적 국민과 문화적 민족이 구분되어 있었다. 즉 정치적 ‘국민’ 개념은 법률적인 의미의 정치 공동체로 근대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 주권, 국민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고, 문화적 ‘민족’ 개념은 역사적으로 공통된 혈통, 언어, 종교, 풍습 및 습관을 가진 문화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왕부지의 중화의식은 근대적 의미의 문화적 ‘민족’개념과 유사한 요소를 내포한다 할 수 있다.²⁰⁾ 본고는 이러한 인식에서 왕부지의 중화인식을 근대적 문화적 민족주의 요소(공간·혈통·습속·집단·문화 등)의 기준에

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2004; 王柯 지음/김정희 역, 『민족과 국가 -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고구려연구재단, 2005 등이 있다.

19) 1990년대 이후 신사학을 표방하는 대만학자와 중국 대륙의 일부학자들이 민족형성과 민족개념에 대해 도구론 혹은 구성주의(constitutionism)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민족과 민족주의는 근대 중국 지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적 구성물이라고 보고 있다. 대만 학계의 대표적인 연구는 沈松僑, 『我以我血薦軒轅-黃帝神話與晚清的國族建構』, 『臺灣社會研究季刊』(第28期), 1997; 沈松僑, 『振大漢之天聲-民族英雄系譜與晚清的國族想像』,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集刊』(第33期), 2000 등이 있다. 대륙 학계의 대표적인 연구로 唐林麗, 『晚清時期的民族主義與民族國家建構』, 『科教文匯』(第8期), 2007; 劉海濤, 『論“族群”建構與“民族國家”認同』, 『貴州民族研究』(第4期), 2006 등이 있다. 국내의 박상수 역시 민족을 근대적인 산물로 본다는 측면에서 도구론적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박상수, 『중국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박상수 등 공저,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고구려연구재단, 2005, 87-116쪽 수록).

20) 拙稿, 『청말 중국 근대 ‘民族’개념 담론 연구』, 『중앙사론』 제29집, 2009, 155쪽.

서 살펴보고자 한다.²¹⁾ 주의를 요하는 것은 중국과 중국의 주변 민족인 소수민족에 대한 용어는 모두 '族群(ethnic)'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만 '족군'의 용어는 최근에 사용되는 용어이고 이 글에서는 명말청초시기를 다루므로 편의상 당시의 전통문헌과 왕부지를 포함한 한족문인들이 애용한 명칭인 '中夏', '諸夏', '中華', '我類'와 '夷狄', '戎狄', '非類', '夷', '異族' 등의 용어를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하', '제하', '중화', '아류'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중국 혹은 중화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중국 혹은 중화와 상대적인 의미인 '夷狄', '戎狄', '非類', '夷', '異族'을 사용할 때에는 이적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논의할 문제는, 왕부지가 말하는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가? 그는 변강지역으로의 이주와 유입 등의 문제에 대해 중국인과 이적간의 인적왕래, 관계설정 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중국인과 이적에 대해 문화융합과 문화갈등에 대한 그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오늘날 논의 되고 있는 공간상 중국의 범주문제, 문화융합과 문화배척에 대한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I. '中華'와 '夷狄'를 구분하는 諸기준

왕부지가 생각하는 중화 '夷夏'의 구분은 근대적 민족구성 요소(공간·혈통·습속·집단·문화)와 유사하게, 공간·혈통·풍습·행동 양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는 夷狄과 華夏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21) 본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상 근대 문화적 민족주의 요소(공간·혈통·습속·집단·문화)라는 시각에서 왕부지의 중화사상 제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왕부지의 중화사상과 청말 민족주의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는 필자의 연구가 축적된 차후의 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夷狄과 華夏는 태어난 곳이 다른 지역이고, 그 지역이 다르면, 그 氣가 다르다. 기운이 다르면 습속이 다르고, 습속이 다르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다르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가운데에 또한 그들의 귀천이 있고, 특히 지역 경계(地界)가 구분되고, 천기가 다르게 되면, 가히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²²⁾

이와 같이 왕부지는 중화와 이적의 차이점으로 지역적 공간·기운·습속·지식 및 행동양식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왕부지는 전통적으로 혈통과 혈연 의미가 농후한 춘추좌전에 나오는 “非我族類, 其心必異, 萌猶夏之階(나의 족류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은 반드시 다르기 때문에, 華夏를 어지럽히는 계제가 싹트게 된다는 것이다)”에서의 ‘族類’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²³⁾ 여기에서 왕부지가 말하는 ‘족류’와 이적은 한 개인이나 통치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夷狄’을 가리킨다.

狄이 狄이 되는 것은 하나의 행위가 이적이 아니라, 그 유래하는 것 모두가 狄인 것이다. 그 군주만 홀로 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화와 백성이 모두 이적인 것이다.²⁴⁾

이처럼 왕부지의 화이론에서는 공간·혈통·풍습·지식 및 행동양식·집단 등의 요인을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설정하고

22) 왕부지, 『讀通鑑論』 권14, 『船山全書』(10책), 嶽麓書社(이하 『讀通鑑論』 약칭), 2011, 502쪽. 즉 “夷狄之與華夏, 所生異地, 其地異, 其氣異矣; 氣異而習異, 習異而所知所行蔑不異焉。乃于其中亦自有其貴賤焉, 特地界分, 天氣殊, 而不可亂”. 본 논문에서 왕부지의 『독통감론』은 2011년에 출간한 嶽麓書社 판본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그 이유는 같은 출판사에서 1996년 출간한 『독통감론』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였기 때문에 판본이 다르면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23) 왕부지, 『春秋家說』 권중, 『船山全書』(5책), 嶽麓書社(이하 『春秋家說』 약칭), 2011, 228, 190쪽.

24) 왕부지, 『春秋家說』 권상, 191쪽.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왕부지의 여러 기준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왕부지의 화이관의 제요소를 검토하기 전에 그의 화이관의 특징은 先秦 시대와 秦漢 이후라는 시간적인 구분을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왕부지는 『독통감론』에서 공자가 지은 춘추에서 언급하는 ‘戎狄’ 혹은 ‘夷’와 秦漢 이후의 용적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춘추』에 쓰여 있는 戎狄은 모두 塞外 황무지에서 멀리 활을 들고 고기를 먹는 족속이 아니다”²⁵⁾고 하고 있다. 또한, 그의 공자 춘추에 대한 연구서 가운데 하나인 『春秋稗疏』에서도 춘추에 등장하는 “戎狄은 모두 塞外の 胡虜, 즉 秦漢 이래로 중국의 근심이 되었던 자(호로)들이 아니다”²⁶⁾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선진 시대의 용적과 진한 이후의 용적이라는 시간적인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진정한 이적으로 간주하지 않은 선진시대 ‘이적’으로, ‘澤潞’·‘王屋’·‘陸渾’·‘姜戎’·‘群舒’·‘淮夷’·‘濮人’·‘島夷’ 등을 열거하고 있다.²⁷⁾ 이외에 楚나라²⁸⁾와 장강 이남에 할거한 ‘蠻夷’ 역시 선진시대 이적으로 불리었지만 왕부지는 이들을 ‘천하 만세의 이적’²⁹⁾이 아닌 일시적인 이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왕부지는 선진시대 등장하는 용적과 이적 들을 ‘만세’ 혹은 ‘진한 이후의 중국의 근심’이 되었던 중화의 진정한 이적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왕부지가 진한 이후 중국의 근심이 되는 이적이라 지목한 종족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왕부지는 이적이 중화에 침략과 약탈이라는 재앙을 안겨준 최초의 시점을 진한 이후로 간주하여, “중국 이적의禍는 목특 선우(한대 흉노족)에서부터 시작되

25) 『讀通鑑論』 권12, 436쪽.

26) 왕부지, 『春秋稗疏』 권상, 『船山全書』(5책), 嶽麓書社(이하 『春秋稗疏』 약칭), 2011, 41쪽.

27) 『讀通鑑論』 권12, 436~437쪽.

28) 『春秋家說』, 224쪽.

29) 『春秋家說』, 299쪽.

었다³⁰⁾”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 다음 후한의 남흉노, 오호16국 시대 갈족·저족·흉노족, 남북조시대의 선비족, 遼의 거란족, 金의 여진족, 그리고 元의 몽고족을 그는 모두 ‘夷狄’으로 열거하고 있다.³¹⁾ 이밖에, 좀 더 세부적으로 왕부지는 唐代에 북방 종족으로, (突厥、奚、契丹³²⁾ 및 고려³³⁾를 이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서쪽의 토번(吐蕃), 회흘(回紇), 사타(沙陀)족³⁴⁾을 이적의 다른 표현인 ‘虜’와 ‘敵’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대에 북방유목 종족인 거란, 여진, 몽고족 이외에, 왕부지는 북송이 ‘夏’를 ‘犬羊’에

- 30) 『讀通鑑論』 권12, 85쪽. 즉 “中國有北胡之禍, 自冒頓始也.” 1977년 중화서국판에서는 북호를 이적으로 쓰여 있음. 즉 “中國有夷狄之禍, 自冒頓始也. 최근 소민여의 연구에서도, 왕부지의 중화사상에 선진시대의 이적과 명칭시대의 이적의 공간적 범주가 서로 상이한 점을 발견하고 있다(蕭敏如, 앞의 논문, 201-202쪽) 필자 역시 기본적으로 소민여의 견해에 찬성하지만, 왕부지의 華夏관은 강역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듯하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왕부지가 중국에 침략과 약탈이라는 제약을 안겨준 최초의 시점을 진한 이후로 흉노족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소민여가 본 것처럼 선진시대의 이적들은 중국에 진정한 이적이 아닌 중화로 교화될 수 있는 이적으로 보았고, 진한 이후의 흉노·남흉노·갈족·저족·선비족·거란족·여진족·몽고족 등은 교화될 수 없는 이적을 보았다. 따라서 왕부지의 華夏관은 명칭시대의 강역과 일치한 다기 보다는 진한 시대의 강역에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진한이후 역시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기본 입장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31) 왕부지, 『春秋世論』, 『船山全書』 (5책), 嶽麓書社(이하 『春秋世論』 약칭), 2011년, 385쪽. 즉 “劉, 石, 符堅, 赫連, 拓跋, 耶律, 完顏, 奇渥之閏統, 非 荆吳徐越”. 왕부지는 여기에서 진한 이후의 중국의 근심이 되는 종족으로 ‘劉(劉淵, 남흉노), 石(石勒, 갈족), 符堅(저족), 赫連(흉노), 拓跋(선비족), 耶律(거란족), 完顏(여진족), 奇渥(몽고족)’으로, 이들 이적은 선진 시대의 ‘荆(호북, 호남), 吳徐越(강소, 절강, 복건, 광둥 일대)’이 융적과 구분하고 있다.
- 32) 『宋論』, 336쪽. 唐나라에 이르러 돌궐, 헤, 거란(突厥、奚、契丹)이 서로 이어서 내지를 소란하게 하였다
- 33) 隋唐이 고려에 대한 정복에 대한 기사는 『讀通鑑論』 (720, 721, 781, 783 쪽)에 보인다.
- 34) 『讀通鑑論』, 1031~1032쪽 참조. 즉 “사타는, 吐蕃과 回紇이 쇠퇴해 가는 사이에 끼어, 스스로 변방에서 우두머리가 되어, 진실로 장차 두 오랑캐(토번과 회흘)를 이어받아 중국에게 敵이 된 자이다.(若沙陀者, 介吐蕃、回紇之衰, 自雄于塞上, 固將繼二虜而与中國爲敵者也.)” 이 밖에 오대십국 시기 이극용을 비롯한 李存勖(후당), 石敬瑭(후진), 劉知遠(후한)을 사타족(돌궐계) ‘삼부의 조그만 이(夷) 혹은 사타 犬羊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讀通鑑論』, 1080쪽 참조)

비유하여 서하국을 이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⁵⁾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왕부지가 진한 이후 이적 집단이라 지칭한 종족들은 선진시대 ‘용적’과 ‘이적’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중화와 이적을 시간적으로 구분하는 논리는 왕부지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전통적인 중국문인들에게 ‘성인’ 혹은 ‘성현’으로 추앙 받고 있는 ‘文王’과 ‘帝舜’에 대한 화이론적 평가에서 왕과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인물이 화이론을 구분하는 논쟁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은 『맹자』의 離婁편에 나오는 ‘帝舜은 東夷의 사람이고, 문왕은 西夷의 사람이다’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청대이전 대략 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시대구분 없이 맹자의 문구를 그대로 받아 들여 ‘제순’과 ‘문왕’ 등을 중국의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³⁶⁾ 또 다른 하나는 왕부지와 같이 선진시대 ‘제순’과 ‘문왕’을 진한이후의 이적과 구분하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한대 사마천의 『사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제순’은 우공에 의해 정해진 ‘九州’가운데 하나인 ‘冀州(하북성 기주시)’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 송말원초 鄭思肖(1239~1310) 역시 진한이후 ‘북위의 척발씨와 북방부락(여진족과 몽고족)은 결코 중국인의 種類가 될 수 없으며, 그들은 스스로 황제의 후손이며 하후씨의 후손이라고 하나 이는 모두 잘못 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맹자의 帝舜과 文王 이적설에 대해, 그는 앞의 『사기』에 나오는 ‘제순은 기주(冀州: 우왕의 구주)사람이다’고 하였고, 황제의 자손인 창의(昌意)의 7세손이다”³⁷⁾라는 근거를 들

35) 『宋論』, 82쪽.

36) 이에 대한 언설은 한대 전기의 『염철론』에서 문학과 현량들이 ‘禹는 西羌출신이고, 文王은 北夷에서 태어났다’고 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桓寬, 『鹽鐵論·國疾』(제28장), 참조). 이와 같은 견해는 정복왕조 특히 청대전기 만주족 황제들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인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拙稿, 『청대 전기 華夷觀과 청조의 滿漢 융합』, 『다문 화콘텐츠연구』 제14집, 2013, 320~322쪽 참조.) 여기에서 옹정제, 건륭제 그리고 조선의 송시열이 ‘제순’과 ‘문왕’을 진한이후의 이적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어 ‘제순’은 진한 이후의 ‘이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왕부지의 언설에서도 후자인 정사초와 유사한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왕부지는 제순과 문왕의 활동 영역이 모두 중국 고대의 ‘九州’ 이내인 ‘중국’으로 보았고, 그들을 모두 ‘중국인’으로 이해하고 있다.³⁸⁾ 이처럼 왕부지는 선진시대에 등장하는 이적은 비록 용어상 이적으로 쓰고 있지만 ‘구주’의 공간 내에 있는 중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진한 이후에 등장하는 흉노·선비·돌궐·토번·사타·거란·여진·몽고 등은 ‘구주’를 침략하거나 점거했던 진정한 이적으로 보고 있다.

왕부지의 華夷峻別의 시간적인 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두 번째 요인은 공간상의 기준이다. 사마천과 정사초와 같이 왕부지는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척도로 ‘冀州’와 ‘구주’, 그리고 ‘새내’등 공간적인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왕부지의 논리에 의하면, 이적과 華夏가 출생지라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공간적 차이로부터 파생되어 종족의 기원과 습속 및 행동양식이 다르게 된다는 논리이다.³⁹⁾ 따라서, 그가 말하는 공간상의 구체적인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37) 鄭思肖, 『古今正統大論』, 饒宗頤, 『中國史學史上之正統論』, 上海遠東出版社, 1996, P.122에 수록. 鄭思肖(1239~1310)가 원나라의 정통성을 반박하는 아래의 언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夷狄이 한족과 같은 공통조상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그는 “북위의 척발씨와 북방부락의 사람들은) 결코 중국인의 種類가 아니고, 개벽이후 그들이 존재하였고, 황제의 후손이며, 하후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맹자의 帝舜과 文王 이적설을 인용하여 이적의 중국통치를 정당화하는 견해에 대해서, 그는 “맹자가 제순과 문왕이 東夷·西夷의 사람이다”고 말하였으나, 『사기』에 의하면 ‘帝舜은 기주(冀州: 우왕의 구주)사람이다’고 하였고, 황제의 자손인 창의(昌意)의 7세손이다”라는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정사초는 제순이 기주(冀州) 즉 중국 고대에 九州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제순은 황제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여 ‘제순 동이설’을 부정하고 있다. 문왕의 ‘서이설’ 대해서도 “문왕의 선조들이 이적의 재난을 피한 적은 있지만, 동이·서이의 언설을 가지고 굳세하게 帝舜과 文王을 논 할 수 없다”고 하여 문왕의 서이설에 대한 논의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38) 왕부지, 『四書訓義·孟子8』 권33, 『船山全書』 (8책), 嶺麓書社, 2011, 466~467쪽.

39) 왕부지, 『讀通鑑論』 권14, 502쪽. 각주 22) 참고

할 것이다.

왕부지는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위에서 언급한 ‘새외’, ‘구주’라는 용어 외에 ‘중국’ 혹은 ‘中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선 왕부지는 塞外 이외에 九州(혹은 塞內)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華夏와 夷狄를 구분하는 구주의 안과 밖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막 이북(장성 이북)과 황하, 조하(洮河: 감숙성 일대)의 서쪽, 日南(베트남 변경)의 남쪽, 그리고 遼海(즉 遼水)의 동쪽 등은 하늘이 다른 氣가 있고, 땅은 다른 이치가 있고, 사람은 다른 기질이 있으며, 물산이 다르다.....九州 이내에 夷가 있는 것은, 夷가 아니다.⁴⁰⁾

이처럼 왕부지는 이들 先秦시대 구주 이내에 있던 이적은 진한 이후의 九州밖(혹은 塞外)의 夷狄과 다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왕부지가 말하는 九州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가? 본래 ‘九州’는 夏商周시대의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후 중국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주에 대한 논의는 선진시대 4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우선, 『尙書』에 구주는 大禹시기에 천하를 冀州(하북성 기주시), 연주(兗州, 산둥), 청주(靑州), 서주(徐州), 양주(揚州), 형주(荊州), 예주(豫州), 양주(梁州) 옹주(雍州, 섬서)를 꼽고 있다. 다음으로, 『爾雅』에서는 『상서』에 없는 유주(幽州, 북경일대)와 영주(營州, 요녕일대)가 포함시키고 있고, 청주(靑州)와 양주(梁州)를 배제하였고, 그 다음에 『周禮』에서는 유주와 병주(산서)가 새로 포함되나 『상서』에 나오는 서주, 양주가 누락시키고 있다. 『呂氏春秋』에는 유주는 있으나 양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주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

40) 왕부지, 『宋論』 권6, 『船山全書』 (11책), 嶽麓書社(이하 『宋論』약칭), 2011년, 174~175쪽.

다. 비록 그러하지만, 선진시대 구주의 북단은 대체적으로 진한이후의 만리장성과 일치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왕부지가 진한이후 흉노와 선비가 침략한 지역으로 지목하여 나열한 구주의 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漢고조가 豊, 沛縣에서 일어나, 이로서 楚가 천하를 결정한 것이니, 천기가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사람에게는 封建에서 郡縣으로 바뀌었고, 하늘은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였으니 하늘과 사람이 부합하는 운수이다. 천기가 남쪽으로 이동하자, 匈奴가 강성해지기 시작하였고, 점차 유주, 병주, 기주, 웅주의 地氣를 서로 얻었다.⁴¹⁾

여기서 진한 이래 흉노가 강성해져 중국의 기운을 얻게 된(즉 침략) 곳이라 지적한 유주·병주·기주·웅주는, 오늘날 북경·산서·하북·섬서 일대로 북으로 만리장성 이남의 구주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할 수 있다. 위진 남북조 시대 선비족이 구주 가운데 기주·병주·웅주를 침략하여, 이들 지역이 ‘이적의 숲의 되었다’⁴²⁾고 한 것에서도 왕부지가 말하는 구주는 북경·산서·하북·섬서 등 만리장성 이남지역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왕부지가 말하는 구주이내는 ‘새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가 후한시기 “남선우(흉노)가 한에 투항하였고, 광무제는 황하 서쪽의 새내에 두었다”라고 한 ‘새내’⁴³⁾와, ‘漢과 魏의 교체기에 강족과 호족, 선비족이 변방 안(塞內)에 섞여 살게 되어 백성들의 근심이 되었다’⁴⁴⁾라고 한 ‘새내’, 그리고 오대십국 시기 후진의 石敬瑭이 거란을 ‘새내’로 끌어 들여 연운 16주를 점거하였다⁴⁵⁾ 하고 하는 ‘새내’와 ‘연운 16주’ 등은 비록 서로 다른

41) 『讀通鑑論』 권12, 454쪽.

42) 『讀通鑑論』 권17, 644쪽.

43) 『讀通鑑論』 권7, 271쪽.

44) 『讀通鑑論』 권17, 431쪽.

왕조시기 중화와 이적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지만, 모두가 구주이내를 가리키고 있다. 왕부지는 거란이 ‘새내’에 난입하여 16주를 점거한 것을 몰아내고, 禹甸(우전)을 회복해야 천하의 군주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⁴⁶⁾, 여기에서 ‘새내’는 ‘우전’을 의미하고, ‘우전’은 禹왕이 개척한 공간의 ‘구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내’란 ‘구주 내’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왕부지가 사용하고 있는 ‘새내’와 ‘구주’의 복단은 북경, 산서, 하북, 섬서 일대와 연우 16주를 포함하는 만리장성 이내를 지칭하는 공간적 용어이다.

塞外와 九州라는 용어 외에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공간적인 용어로 왕부지는 ‘中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黃書』의 『宰制』 편에서 그가 구상하는 행정구역을 하북·산동, 강북·제남, 하남·荊北, 燕南·하동, 開陝·秦隴(사천 일대), 荊南·江右, 江南·福·浙江(북건, 절강 일대), 巴西·瀘南(사천), 南贛·嶺海(강서), 嶺西·桂·象(광서일대), 滇·黔·洱海(귀주, 운남 일대), 畿輔(북경일대), 左輔, 右輔, 大同(산서), 延綏(섬서), 寧夏⁴⁷⁾ 등 18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북건과 병렬하여 ‘북건과 광동의 해변’을 포함시키고 있고, ‘중구’의 생산과 공급을 언급하면서 ‘廣東은 嶺의 동남의 생산물을 먹는다고 묘사하고 있다.⁴⁸⁾ 그가 말한 ‘중구’의 지역 범주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복단은 대체로 만리장성 이남과 일치하고⁴⁹⁾, 동단은 광둥·북건·절강·산동·하북

45) 『讀通鑑論』 권30, 1164쪽.

46) 같은 책, 1165쪽.

47) 『黃書』(宰制편) 제3, 『船山全書』(12책), 嶽麓書社(이하 『黃書』 약칭), 2011년, 509~510쪽.

48) 『黃書』(宰制편) 제3, 517, 518쪽.

49) 사실 이와 같이 중국의 복단으로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내외를 구분하는 견해는 왕부지 이전부터 한족 문인들에게 자주 사용되던 견해였다. 가령 사마천의 『사기』에 漢의 文帝가 흉노의 선우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漢 先帝(고조)께서 ‘장성이북은 활을 잡아 당기는 나라로 선우의 命을 받고, 장성 이남은 모자를 쓰고 혁대를 차는 가옥들은 짐이 그들을 통제한다’라 장성의 내외를 정치관할의 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다.([한사

의 동쪽인 동해와 일치하고, 서단은 사천·섬서·귀주·운남·섬서의 서쪽과 일치하며, 남단은 광서·광둥 이남과 일치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은 그가 ‘중국의 형세’를 설명하고 중국의 통치범주가 아닌 불간섭 지역으로 설정한 지역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는 ‘중국’이라는 용어로 공간적 범주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中區’의 지역과 대동소이하다.

중국의 형세는 북으로 사막이 막고 있고, 서북으로 黃河와 潢水를 경계하고, 서쪽으로 큰 산으로 막혀있으며, 남쪽으로는 더운 바다가 다하여, 합포(광서성)에서 북으로 礪石(갈석, 하북 창려)에 이르기 까지 모두 바다가 둘러싸여 있다.⁵⁰⁾

또한, 그가 불간섭지역으로 지목한 지역에서도 유사한 언설을 확인할 수 있다.

왕 노릇 하는 사람은 이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代(산서성 장성 雁門關)의 북쪽, 粵(광둥)의 남쪽, 바다의 동쪽(遼海), 磧(사막)의 서쪽은, 다스리는 곳이 아니다.⁵¹⁾

마천, 『사기·흉노열전』 110권. 先帝制：長城以北，引弓之國，受命單于；長城以內，冠帶之室，朕亦制之) 또한, 『한서·서역편』에서 도, “진시황이 용적을 몰려쳐 퇴각시키고, 장성을 축성하여, 중국에 경계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고([漢] 班固, 『漢書·西域』, 券 96上, 清乾隆武英殿刻本), 『후한서』에 역시 “하늘이 山河를 진열하였고, 秦이 長城을 축성하여, 內外를 구별하고, 殊俗이 다른 까닭이다”라 하여(晉) 范曄, 『後漢書』(烏桓鮮卑列傳), 권80, 百衲本宋紹熙刻本. 같은 내용이 袁宏, 『後漢紀』에서도 보임, (효령황제 기증권 24) 四部叢刊景明嘉靖刻本), 만리장성을 내외, 중외, 화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인 내외구분은 秦漢 이후 청조 이전 까지, 대부분의 한족왕조(비한족 왕조 제외)가 만리장성을 개·보수하고, 화이지변의 전통 관념과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한 것에서도 이를 방증한다 할 것이다. 왕부지는 이와 같이 중화와 이적을 특정한 공간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고 있는 견해를 계승하고 있다.

50) 『讀通鑑論』 권3, 126쪽.

51) 『春秋世論』 권1, 390쪽. 이와 같은 논리는 『讀通鑑論』(『讀通鑑論』 권26, 992쪽.)에서도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왕부지가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기준은 시간상, 공간상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선진시대에 사용되었던 이적과 용적은 진한이후 이적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⁵²⁾ 그리하여 그가 말하는 이적은 선진시대의 이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중국 이적의禍는 목특 선우(한대 흉노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진한 이후의 이적을 의미한다. 공간적으로 塞內·九州·中區·中國의 기준은 진한 이후 변강지역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왕부지가 말하는 중화는 선진시대의 구주이내에 거주한 제하와 이적을 모두 포함하고 진한이후 변강 이내에 출생한 한족을 중화의 종족 혹은 중국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왕부지가 말하는 이적은 주로 진한 이후 변강 밖, 특히 그 가운데 중국의 북단인 만리장성 밖에 출생한 흉노·선비·돌궐·토번·사타·거란·여진·몽고 등의 종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처럼 왕부지의 화이관은 공간적·시간적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고, 향후 논의되는 그의 혈연·습속·문화 등을 통한 중화와 이적의 구분, 그리고 그의 이적과 중화의 용화변이에 대한 입장 역시 이를 전제로 해야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진한 이후 중국과 이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왕부지는 혈연과 혈통을 강조하는 순혈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왕부지는 위진남북조 시대 선비족인 북위의 한화정책 이래로 중국의 성씨와 족성이 혼탁해졌다고 보고 있다.

(북위) 척발씨의 흥기로부터, (그들이) 중국의 禮樂文章을 빌려 그들의

확인 할 수 있다.

52) 선진시대의 이적 가운데 유일하게 왕부지가 영원한 이적으로 여긴 것은 獯鬻(훈족)뿐이다. 즉 “북쪽의 끝 변방 밖의 狄은 周나라에 獯鬻(훈족)이 되고, 漢나라에 匈奴가 되어, 중국에 내통하지 못했고, 왕과 작위를 받지 않은 종족이다(極北塞外之狄, 周爲獯鬻, 漢爲匈奴, 不通中國, 不受王爵者也.)”(『春秋稗疏』 권상, 41쪽 참고). 훈족은 중국과 왕래하지 않았고, 왕과 작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한 이후 흉노족과 같이 이적으로 보고 있다.

族姓을 사칭하였고, 隋唐 이래에는 그들 모두가 중국의 백성(民)이 되었고, 심지어는 사대부가 되어 그들의 문벌과 공적을 스스로 밝혔다. 높은 문벌과 큰 성씨 10가운데 5은 3왕5제의 방계와 서자가 아니고, 혼인과 벼슬살이가 서로 섞여있어도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다.⁵³⁾

이 외에도, 당말 사타족 등 이적에게 당나라 왕족의 賜姓을 내리거나 한족 성씨를 사칭(冒姓)한 것에 대해, 왕부지는 중국과 이적의 구분하는 혈통적 잣대를 들이 대고 있다. 그는 후당을 건립한 李嗣源(사타인, 후당 이극용의 아들)은 당왕조 이씨 성의 사성을 받고 이를 빌미로 당을 계승하여 후당을 세운 것과, 徐知誥가 당조의 성씨를 사칭하여 李昇이라 사칭하여 남당을 건립한 것에 대해 누구 성씨의 아들인지(誰氏之子) 혹은 누구 성씨의 자손(誰氏之子孫)인지를 모르고, 유가 가치인 부자군신의 윤리를 크게 문란하게하였다는 이유로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⁵⁴⁾ 또한, 북송 시기 거란이 연운16주를 점거하였을 때, 중국인들이 “누구 성씨의 餘民(망한 나라 백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적인 거란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역시 그의 비판대상이 되었다.⁵⁵⁾ 요컨대 설사 혈통적으로 이적이 중국을 점령하여 통치한다 하여도 이적 국가는 중국인에게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그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一時的 君臣을 가지고,

53) 『讀通鑑論』 권12, 436쪽.

54) 왕부지가 사타인의 혈통적 전통성의 부정에 대한 언설은 여러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즉 “李嗣源(사타인 후당 이극용의 아들), 夷裔也, 名爲唐而唐之; 李昇(남당 서지고), 不知其爲誰氏之子也.(『讀通鑑論』, 80쪽; 李存勗朱邪(사타족)之部落, 李昇不知誰氏之子, 必欲伸其冒姓之妄于諸國之上, 以嗣唐統而授之宋.(『讀通鑑論』, 610쪽) : 朱邪存勗(사타인)以異類, 徐知誥以不知誰氏之子孫, 冒宗支而号召以興(『讀通鑑論』, 1060쪽); 沙陀夷酋耳, 唐蔑天逆理而賜之姓, 遂假以競于朱溫曰: 吾李氏子也. 存勗稱帝, 仍号曰唐, 以高祖、太宗、懿宗、昭宗、雜朱邪執宜、朱邪赤心之中而祖之, 唐之祖宗, 能不恫怨于幽乎? 嗣是而徐知誥者, 不知爲誰氏之子(『讀通鑑論』, 1105쪽): 徐知誥自詠爲吳王恪之裔, 雖蒙李姓, 未知爲誰氏之子, (『讀通鑑論』, 1141쪽).

55) 『讀通鑑論』 권30. 1165쪽.

古今 夷夏의 通義를 폐할 수는 없다”는 尊王보다 攘夷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그가 『황서』에서 “선양할 수 있고, 계승할 수 있으며, 혁명할 수 있다. 그러나 夷의 부류로 하여금 그들 사이에 있지 않게 한다”⁵⁷⁾라는 주장 역시 양이우선의 원칙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이적과 혼인문제에 있어서도 ‘혼인은 인륜지 대사로, 族類(혈연)를 반듯이 구분해야한다’고 주장 하였고, 중국의 천자가 화친의 일환으로 ‘이적’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천자가 딸을 夷狄에게 시집보내면 臣民들은 버릇없이 뺨뚫어져 굴욕으로 여기지 않고, 夷狄들은 또한 내지를 왕래하게 되고, 내지의 여자들은 오랑캐에 시집가는 것이 많아질 것이다(혈연주의-저자 주). 오랑캐의 아이와 섞힌 어머니의 기운으로 그 언어를 익히니, 성내고 거센 것은 그 아버지와 같고, 지혜와 교모함은 그 어미와 같아, 그가 부족한 것은 도와주고 넘치는 것을 돕게 된다. 그런 고로 유연(흉노), 석록(갈족), 고환(선비), 우문흑랄(선비) 부류는 그 교활함이 조조와 사마의(한족) 비해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禮節이라는 것은 단지 저들이 꾸미는 간사한 수단으로, 중국을 굴종시켜 신하로 만드는 데에 넘침이 있는 것이지, 두려워하여 중국에 신하가 되겠는가?.....백성을 이주시키는 것은 不仁한 것이고, 和親은 염치가 없는 것으로 또한 변론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다.⁵⁸⁾

56) 『讀通鑑論』 권14. 536쪽. 왕부지는 一時의 義와 고금의 通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一人의 正義가 있고, 한시대의 大義가 있으며, 고금의 通義가 있다. 輕重을 저울질하거나 公私를 분별할 경우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一人之正義를 가지고 한시대의 大義를 보면 일인之義는 私인인 것이 된다. 一時之義를 가지고 古今之通義를 보면 一時之義는 사적이 되는 것이다.”(왕부지, 『讀通鑑論』 권14. 535쪽.) 여기에서 一時의 義란 한때의 군주를 말하고, 고금의 通義는 夷夏之辨을 의미한다. 요컨대, 존왕인 일시적 군주와 夷夏之辨의 通義가 충돌할 때, 존왕보다 양이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57) 『黃書』 제1, 503쪽.

58) 『讀通鑑論』 권2, 90쪽.

이처럼, 그는 천자의 딸을 시집보내는 문제는, 이적과 중국인들의 왕래, 그리고 이주결혼, 혼혈로 혈통의 순수성을 해치는 데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서는 이적들이 중국을 굴종 시키는 수단으로 한화정책을 실행하는 것이지, 이적들이 중국을 두려워 하여 신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왕부지는 후한 남선우가 변경지역 이내로 이주하여 중국인과 잡거하여, 혈연·풍습 등이 혼란스럽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천년 이후까지 연속되면 그가 누구의 종족인지를 잊게 된다”⁵⁹⁾고 하여 종족의 혈연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한 이후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네 번째 차이점은 문화적 차이다. 왕부지는 중화와 이적을 판별하는 기준이 문명(衣冠)의 禮樂과 仁義의 존재 여부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가운데 이적과 중화, 사람과 금수를 구분하는 척도가 ‘禮’의 존재여부에 달려있고, ⁶⁰⁾ 그 禮를 통한 교화의 역할이 막대하다고 그는 판단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禮를 통한 교화의 첫 번째 역할로는, 하늘과 땅이 자기 스스로 제자리를 잡게 하고, 귀신은 스스로 편안해지게 하며, 仁義가 몸체(體)가 되고, 孝悌가 用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예의 교화 역할은 三綱五倫의 經緯가 되고, 사람과 금수를 구분하고 판별하는 기준이 되며, 치세와 난세를 다스리는 것이며, 현자와 불초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어서, 이 예가 없이는 道는 빛나는 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⁶¹⁾ 즉 이 예약과 인의를 가진 사람이 중화이고, 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이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는 중화의 사람과 이적 사이에 공통점과 유사성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적과 중화는 골격과 이목구비(骸竅)가 서로 같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도 같다고 그는 인정하고 있다. ⁶²⁾ 그리고 설사 이적이라

59) 『讀通鑑論』 권6, 249쪽.

60) 『春秋家說』 권하, 333쪽.

61) 『讀通鑑論』 권17, 635쪽.

62) 『黃書』, 501쪽.

할지라도, 금수보다 우월한 점이 있고, 비록 항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잠시 동안 일시적인 仁義禮智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수는 仁智를 잠시 동안 간혹 존재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의 仁은 여러 禮에 드러나지 않는다, 잠시 동안의 지혜는 여러 義에 곧을 수가 없다. 이것이 금수의 마음이다. 夷狄의 仁은 금수에 비해 넓고 크다. 이적의 智는 금수에 비해 通明(관통과 분명함)이 있다. 또한 단지 不義한 것과 無禮한 것에서만, 금수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적의 道이다. 비록 그러하지만, 의로서 지혜를 끈게 하고, 지혜로서 일을 세우며, 일로서 공을 갖추게 되면, 공은 패배를 모면하게 된다. 이런 고로 이적이 패배를 모면하면 반듯이 공훈이 있고, 공은 반듯이 지혜로 인하면, 지혜가 義를 모반한 즉, 패배를 부르고, 공은 나락에 빠지게 된다. 그 功이 패배를 모면한 것은, 그들에게서 義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만약 잠깐의 仁의 경우에는, 여러 禮의 기준에 맞지 않아 역시 우매함과 천박함을 움직인다. 그런 고로 이적은 비록 義를 빌리지만, 끝내 禮를 반듯이 버리고, 禮를 버리는 것을 功으로 여기니, 이것을 이적이라 부른다.”⁶³⁾

이적은 일시적인 인의예지를 통해 공적을 세우는데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공적을 세우고 나서, 이적의 仁義는 그것을 적합하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게 운용되고 기준이 되지도 않아서, 결과적으로 사람과 금수를 구분하는 척도인 '禮'를 저버리는 것이 '이적'이라고 왕부지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화와 이적은 구분되는 것이지 융합 혹은 결합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고대 성현들이 “성인이 사물을 살핌은 모두 그러하여 그 종족을 스스로 구분하고, 천하를 주관하여 군장이 된다. 그들의 영민함과 어두움을 구분하고, 그들의 의심되고 유사한 것 셋

63) 『春秋家說』 권상, 145쪽. 왕부지는 금수와 이적을 동일시하지 않았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왕부지는 이적과 금수를 문명 발달의 두 개의 다른 단계로, 금수에서 이적으로, 진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 없애고, 그들의 미혹되고 손상되는 것을 헤아리며, 그들의 성곽을 높여, 그들의 禍를 끊어서 그들이 서로 구제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⁶⁴⁾라고 한 것처럼 중화와 이적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마치 고대 중국의 성현들이 “그들 씨족을 바로잡고, 그들의 결혼을 구분하였으며, 그들의 도읍과 시골을 구분지 었으며, 그들의 풍속을 제정하여, 그것을 유지함을 그들의 본성대로 하게 하였다”⁶⁵⁾고 하여 중국은 중국의 본성을 따르게 한 것처럼, 이적 역시 이적의 본성을 따르게 하라는 것이다. 그는 이적의 본성 혹은 천성으로 아래와 같은 덕목을 꼽고 있다.

이적들이 모질고 사나운 것이 넘치고, 지혜와 기교가 부족하다. 그들의 天性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習俗 역시 그러하다. 性(성품)은 태어난 기운을 받고, 習性은 어렸을 때에 형성된다.⁶⁶⁾

夷狄들이 죽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천성이 그러하다.⁶⁷⁾

安史(안녹산과 사사명)가 번갈아가면서 배은망덕한 효경(梟獍)된 것은, 이적의 天性이 그러한 것이어서, 이상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다.⁶⁸⁾

夷狄은 전쟁을 통해 強해지고, 전쟁을 통해 亡하는 자이다. 그들은 능히 재앙을 뉘우치고 군사를 그친다면, 그들의 군사는 휴식을 갖게 되고, 그들의 백성은 모여 살게 되며, 그들의 말은 번육하게 한다. 그들의 騎射(말 타기와 활쏘기)의 기예는 본성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쓰지 않아도 없어지지 않는다.⁶⁹⁾

64) 『黃書』, 501쪽.

65) 『讀通鑑論』 권7, 272쪽.

66) 『讀通鑑論』 권2, 90쪽.

67) 『讀通鑑論』 권15, 596쪽.

68) 『讀通鑑論』 권24, 931쪽.

이처럼 이적은 모질고 사나운 기질·습속·습성과 말 타기와 활쏘기의 천성과 본성을 갖고 있고, 유가 가치와 위배되는 살인경시·불효 등의 천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가 “夷狄이 어찌 仁義를 알게 는 가?”⁷⁰⁾라고 반문한 것처럼 이적은 중화의 보편가치인 ‘인의’를 알 수 없다고 보았다. 이처럼 왕부지는 언어·습관·기질·습성 등을 이적과 중화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가 앞서 언급한 시간·공간·혈연·문화 등 요인에 비해 소략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Ⅱ. 내지 중국인의 변경지역으로 移住와 문화융합

왕부지는 시간·공간·집단·혈통·문화 등의 요인으로 중화와 이적을 엄격히 구분하는 동시에, 중화와 이적을 변경 지역으로의 이주 혹은 유입시키는 문제와 변경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과 이적에 대한 문화융합(用夏變夷)을 실행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하는 ‘구주’이내 ‘중화’의 종족(선진 시대 이적 포함)들을 변경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에 대해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들에게 중화의 문화로서 이적을 변화시키는 용화변이를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상반되게 이적들에 대해서는 변경지역 이내로의 침략은 물론 그들을 내지로 끌어들이는 이주·유입·조공 등 온건한 형태의 이주와 접촉을 반대하고, 설사 만리장성 이남지역을 침략하여 점거한 이적들이 자발적으로 用夏變夷의 한화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왕부지는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우선 왕부지가 내지 중국인이 변경 지역으로의 이주 정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에 대한 문화융합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69) 『讀通鑑論』 권15, 564쪽.

70) 『讀通鑑論』 권6, 214쪽.

왕부지는 이적의 중화에 대한 위협에 대해 경계와 의심의 태도를 보였고, 이적에 대해 항상 방어위주의 유비 무한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역경』에 나오는 “망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여, 튼튼한 뽕나무 뿌리에 묶어라”라는 구절을 그의 여러 저작물에서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우선 그는 『황서』에서 진한이래로 중국에서의 이적의 재앙이 끊이지 않았는데, 송대에 이르러 여진과 몽고가 잇달아 침입하여 삼황 오제와 漢唐의 강역을 모두 빼앗겨 중국의 방어선이 무너졌는데, 유사 이래로 이러한 재앙은 없었으며, 이러한 재앙의 시작은 秦나라이고, 이 재앙이 완성된 것은 宋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새들이 튼튼한 뽕나무의 뿌리에 묶어 새 동지를 틀어 위협에 대비하는 것처럼 근본적이 대비를 갖추어야 했었지만, 秦과 宋은 근본이 아니라 겉가지인 말단에 묶어 놓아서(임시방편) 이적의 재앙을 모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⁷¹⁾ 『독통감론』에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亂을 미리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기에 앞서 나라를 보전하는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천자의 大臣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꼽고 있다.⁷²⁾ 또한, 『송론』에서도 여진족(금)과 몽고족(원)에 침략과 위협으로 장차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여 있을 상황에서, 송나라는 “뽕나무 뿌리를 묶고 단단하지 않은 것을 걱정한다”라는 경계와 대비의 태도를 갖추지 못해, 결국 ‘나라는 이미 위태로워졌고, 백성들은 결국 그 삶을 보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⁷³⁾

그렇다면 왕부지가 말하는 ‘튼튼한 뽕나무 뿌리’, 즉 근본에 무엇을 묶어야 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그는 ‘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근본을 묶을 수 있다’고 하고, 그 근본으로는 나라와 백성을 제시하면서, 이 ‘(근본

71) 『黃書』 제2, 506~508쪽.

72) 『讀通鑑論』 권23, 864쪽.

73) 『宋論』 11권, 269쪽.

인) 나라와 백성이 있어야, 산천·성곽·양식·군사 모든 것을 갖추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⁴⁾ 그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그 첫 번째 두려움이란, 이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여, 미리 대비해서 스스로 강해지는 두려움을 말한다. 가령 약소국인 고구려가 수문제의 공격에도 정복당하지 않았고, 천하를 석권할 능력을 가진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수와 당이 고구려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구려인의 방어가 공고하였기 때문이고, 이 고구려의 수비가 공고했던 근본 원인은 수나라가 남조의 陳을 멸망시킨 이래로 고구려는 수나라의 침략으로 남조의 진과 같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경계심과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왕부지의 분석이다. 이러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고구려 사람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였고, 장수 선발, 군사훈련, 군량미 축적, 무기손질 등 군사적 대책을 미리 대비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당의 강대한 군사를 막아 나라를 보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다.⁷⁵⁾ 다른 하나는 이적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그것도 지나치게 무서워하여, 대응할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다. 가령 남송의 고종이 여진(금)의 남진으로 인한 북송의 멸망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적인 여진에게 稱臣의 모욕을 참고, 원수를 설욕하지 못한 것은, 그 뿐나 무 뿌리와 같은 잃어버린 나라와 빼앗긴 백성을 망각하는 극도의 두려움이자 공포심인데, 이는 그가 원하는 두려움은 아니었다. 이처럼 왕부지는 나라와 백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 특히 고구려가 수당을 경계한 것처럼 중화가 이적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견고하게 하여,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중국내지의 중국인들을 변강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주장을 펼친 것 역시 진한이래 夷狄들의 중국 침략과 약탈로 인해 중국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경계심과 두려움의 연장선

74) 『讀通鑑論』 권19, 721쪽.

75) 『讀通鑑論』 권19, 720~721쪽.

에서 그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왕부지의 중국내지의 중국인들이 변방지역으로의 이주시키는 견해는 西漢 초기 조조(晁錯, BC 200~154)가 文帝에게 올린 ‘백성을 이주시켜 변방을 튼실하게 하는 방책(徙民實邊)’을 위대한 계책이라 극찬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왕부지는 조조의 변방을 튼실하게 하는 徙民정책(이주정책)은 후세에 중국의 내지에서 실행할 수 없고, 변경지역에서만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내지 중국인을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로, 변방지역의 땅은 비옥함과 척박함이 고르지 않아서, 만약 내지에서 이주한 백성들에게 이 척박한 땅을 분배하여 경작하게 하면, 백성들은 도망하거나 죽게 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변방에 파견된 관리들의 처우개선이 없이는, 관리들이 변경에 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왕부지가 이해하고 있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조는 변방지역의 관리선발 제도와 관리처우에 대한 개선을 주목하고 있다.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은 변방지역에 파견된 관리가 가난하고 지원자가 없는 乙科출신이거나 잘못이 있어 유배되어 보충된 관리(葦吏)들로 충원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변방의 관리들이 변방에서의 임기를 마치고난 후에 중앙의 臺諫이나 郎官과 같은 고위관직이 된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내지의 監史나 郡守로 발탁된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조의 해결책은 지원자가 많은 甲科출신 가운데 시험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변방지역의 관리가 되게 하고, 이들 갑과 출신 관리에게 巡撫활동을 권장하고, 요역과 부역 경감, 상인들의 왕래와 식목과 축목을 가르치는 민심안정 정책을 실행하게 하며, 學官의 선발을 확대하여 관리의 명예를 높이는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⁷⁶⁾ 만약에 이와 같은 조조의 이주정책이 실행된다면, “변경의 관리들은 북방의 이적들에게 이용되어 중국의 분쟁을 틈타는 사람이 되지

76) 『讀通鑑論』 권3, 110~111쪽.

않을 것이고, 백 년 동안은 변경지역을 보전할 수 있고 변방은 날로 강해져, 이적들은 스스로 쇠락하게 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리고 될 것이다. 그런 고로, 조조의 말은 위대하다”고 왕부지는 극찬하고 있다.⁷⁷⁾

하지만, 이와 같은 조조의 내지 중국인의 변경으로 이주정책이 그 실효성을 가지게 된 것은 한무제 때이다. 왕부지는 조조이 실패한 것은 그가 때를 잘 못 만나 백성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한무제가 성공한 것은 시기가 성숙되고 또한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⁷⁸⁾ 그는 한무제의 이주정책에 대해서 사마천과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한무제가 백성들을 노역하게 하는 것이 심했지만, 그가 배고픈 백성을 구할 수는 있었다. 倉廩(창피)를 비울 정도로 그것을 펼치고, 富民에게 돈을 빌리기를 좋아하여,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공급되지 않으면, 그 변화를 통하게 하여 朔方과 新秦에 70여 만 명의 荒民을 移徙시켰고, 縣官에게 지하여 공급하게 하였으며, 산업을 주고 백성들이 생을 얻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고향을 쉽게 떠나 새로운 읍에 안착하게 하여, 변방은 이로 인해 충실하게 되었다. 이 책략은 晁錯이 그것을 말한 적이 있다. 조조는 그 때가 아니어서 백성에게 어지러움이 되었으나, 무제는 그 때를 타고 백성에게 이로움이 되었다. ⁷⁹⁾

삭방과 新秦(진이 육국병합 이후 새롭게 설치된 郡縣, 邊郡이라고도 함⁸⁰⁾)에 내지의 백성을 이주시킨 한무제의 정책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는

77) 같은 책. 111쪽.

78) 『讀通鑑論』, 140쪽.

79) 『讀通鑑論』 권3, 140쪽. 한무제의 내지 백성의 변방지역에 대한 이주정책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는 사마천과 다르다. 사마천의 변방강화 정책에 비용이 많이 든 것을 지적하여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왕부지는 비록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튼튼한 변방과 변방 백성들의 민생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한무제의 이주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사마천 등 다른 역사가들과 다르다. 사마천 등 여러 역사가들은 한무제가 지나친 비용을 들여 빈민을 구제하고 무리한 이주정책을 실시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왕부지는 한무제의 변방이주 정책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민생안정과 구제정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변방을 튼튼하게 하는 변방강화 정책이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왕부지는 선진시대 봉건제와 다르게 진한이후의 군현제 하에서는 중앙과 변방(혹은 중앙과 변군)의 구분이 없는 四海一家라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앙과 변방이라는 구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경기이내와 내지의 郡邑들은 조정에 가까워, 조정이 관리들의 잘잘못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백성들 역시 천자의 교화와 법률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어, 명교가 일어나고 풍속이 우아하여, 중등의 재능을 가진 관리가 부임한다 하여도 내지 지역을 다스리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적들과 섞여 있는 변경지역은 내지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즉 변경의 백성들은 완고하고 비루하며 사납고 포악한 것에 익숙해져 있으며, 유교의 시서예악의 문자를 깨우친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변경의 관리들은 백성들의 우매함을 이용하여 속여 수탈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방의 백성들은 중앙에 천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변방의 관리(長吏)만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탐욕하고 포악스러운 관리는 오직 그가 행한 것만 있을 뿐이지, 그를 비판하는 淸議는 미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변방의 백성과 이적들은 변방의 관리에 대해 원망이 쌓이게 되고, 일단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변방의 백성들은 깃발을 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나게 되어, 그禍가 천하의 내지로 끊어 드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왕부지는 변방을 중앙보다 더 중요시해야

80) 한대 邊郡과 변경관련 연구로, 김경호, 『漢代 邊郡支配의 普遍的 원리와 그 성격』, 『동양사연구』(제91집), 2005; 김경호, 『漢代 邊境地域에 대한 儒敎理念의 普及과 그 이념』, 『중국사연구』 제17집, 2002; 정번, 『後漢代 南夷 지역의 변군 지배와 ‘南中’·‘南人’ 개념의 출현』, 『중국사연구』 제49집, 2007 등이 있다.

한다고 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변경지역에 군현을 설치하고, 중등이 아닌 현명하고 유능한 관리를 파견하여, 중화로서 이적을 변화시켜(用夏變夷), 풍습과 교화를 실행하게 되면, 백성들의 힘은 더욱 근면하게 되고, 마음은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교화된다는 것이다. 81) 이와 같은 사례로 왕부지는 八閩(복건성), 東粵(광동성 동부지역)을 들고 있다.

八閩·東粵은 옛날(선진시대) 역시 황폐하고 누추한 지역이었고, 守守의 선발을 중시하여, 현명하고 재능 있는 관리가(賢才)가 가서 다스리어, 지금은 이미 文教의 지역으로 교화되었다. 어찌 유독 嶺(광서)·桂(계림)·滇(운남)·黔(귀주)·階(감숙)·文(감숙)·邛(사천)·雅(사천)지역만이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없겠는가? 82)

원래 황폐하고 누추한 복건과 광동성 동부지역은 변방 관리의 선발을 중요하게 여겨, 유능한 관리를 파견하여서 이미 문교지역으로 교화시킨 것처럼, 광서·계림·운남·귀주·감숙·사천 등 변방지역 역시 군현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리게 된다면 중화로 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왕부지는 위와 같이 중국의 남부와 서부의 변경지역을 교화되거나 교화할 수 있는 중국의 내지로 보았고, 그 곳의 사람들을 중국인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선진시대 『춘추』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들 역시 구주이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 보고 있다.

『춘추』에서 기록한 戎狄은 모두 변방 밖(塞外)에 황무지의 멀리 활을 들고 고기를 먹는 족속이 아니라, 그들이 중국의 산림과 계곡에 분포되어 이동이 고정되지 않아, 후세에 流民이 되고, 산의 도적이 되니 모두 이렇다. 澤潞(산서성 晉城市, 오늘날 지명 필자주)이동, 경정이남, 태행(태행산)

81) 『讀通鑑論』 권21, 792쪽.

82) 같은 책, 793쪽.

과 王屋(산둥 濟源市)에 끼어 있는 곳에 赤白狄이다. 회하의 늪에 끼어 있는 淮夷(장강과 淮河일대 종족). 商, 雒, 浙, 鄧, 房, 均 등 戎蠻(하남성)과 陸渾(하남성 낙양시)이다. 夔(사천)·巫·施·黔(귀주), 濮人(장강 지류 漢水이남 彝族)이다. 漢川(호북성 중부)·秦·鞏(사천성) 姜戎(감숙성 서쪽)이다; 潛(절강)·霍(산서)·英·六·光·黃·隨·均, 群舒(안徽성일대 종족)이다; 宣(안휘)·歙(안휘)·嚴(절강)·處(절강), 島夷(중국 동해 근해 섬)이다. 그 후(진한 이후, 이들 지역은) 군현으로 둘러싸고, 기미정책을 실시하여 그들을 版圖의 나머지에 붙게 하였다.(변군 설치, 필자 주) 그러나 사람들이 땅보다 넘치면, 거기에 거처하지 못하였다. 땅이 사람들보다 넘치면 이로 인해 다스려지지 않았다. 마침내 경작과 직물에 힘쓰지 않았고, 고정된 사업이 없어 유민이 되어, 수천 년이 이어져 그치지 않았다.⁸³⁾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왕부지는 선진시대에 등장하는 이적들을 진한 이후의 유목민족(즉 ‘변방 밖(塞外)에 황무지의 멀리 활을 들고 고기를 먹는 족속’)과 구분하고 있고, 선진 시대 유적들은 진한 이후 변군의 설치에 의해 중국의 판도 내에 편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 후에는 사람들이 변군 공간보다 많으면 변경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변군지역이 거주민 보다 넓으면 다스려지지 않아, 백성들은 경작과 고정된 사업이 없게 되어 유민들로 전락하게 된 지가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왕부지는 분석하고 있다. 이 유민들로 전락된 변방지역에 대한 해결책으로 왕부지는 아래와 같은 군현설치와 用夏變夷의 교화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尊儀(사천), 平越(귀주)에 군현을 설치하여, 播州(귀주 존의시)는禍를 진압하여 안정되었다. 天柱(귀주성 동남), 嘉禾(호남 남부), 新田(호남 남부)에 군현을 설치하여, 武(산서), 靖(호남성 묘족자치), 郴(湖南성 동남부), 桂(광서 계림)의 寇賊들이 사라졌다. 그러한즉 階(섬서), 文(감숙), 秦, 徽,

83) 『讀通鑑論』 권21, 436~437쪽.

英, 六, 隨, 黃, 漢, 雒, 淮浦, 夔, 郢 등 지역에 郡縣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그 끝자락에 이주시키고, 땅을 광활하게 취하게 하며, 그 田疇(논 밭의 경계)를 구분시켰고, 그 자제들을 거두어 가르치며, 그 정서를 안정되게 하고, 그들의 뜻을 도달하게 하여, 농민들에게 恒産이 있게 하고, 선비들에게는 향심이 있게 하면, 나라는 고정된 부세가 있을 것이다. 한 시기에는 힘이 들고, 비용이 들어도, 천년을 이롭고 흥하게 될 것이다. 큰 실행이 있을 군주와 재상은 백성들을 좌우하도록 천지를 마름질하고, 중화로서 이적을 변화시켜서(用夏變夷), 백성을 개도하고 지역을 안정시킨다면 經世의 큰 개책이 아니겠는가? 어찌 강구하지 않는가?⁸⁴⁾

이처럼, 왕부지는 변방지역에 군현설치·백성 이주·농지분배·자제교육 등 일련의 민생안정과 교화정책을 실시하고, 농민들에게는 경제적 안정을 주는 한편, 사대부들에게는 정신적 안정을 주면, 나라에 고정된 부세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군주와 재상들이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용하변이의 교화정책을 실시한다면 변강지역의 백성들이 개도되고 그 지역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큰 개책이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왕부지는 이적의 침략과 약탈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미리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그는 내지의 중국인들이 진한 이래로 개설된 변군 혹은 변경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주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변방으로의 이주정책은 비록 한무제 시기와 같이 막대한 비용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변방의 안정과 백성의 구제, 그리고 용하변이라는 교화정책의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내지 중국인들의 변방지역으로의 이주정책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84) 같은 책, 437쪽.

Ⅲ. 夷狄의 변경이내 유입 반대와 문화배척

다시 한 번 주의를 요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중화는 진한이전 구주 이내에 출생하여 활약하던 모든 이적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적은 진한 이후 구주 밖에 태어나서 중국에 위협을 가하거나 중국을 정복한 흉노·오호16국·선비의 북조·遼의 거란족·金の 여진족·그리고 元의 몽고족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왕부지는 내지 중국인의 변경지역으로 이주와 변경지역 중국인들에 대한 문화융합(用夏變夷)을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게, 변경 밖 이적들이 변경 내의 이주, 국내 문제로 인한 이적과의 결탁, 이적들의 조공을 위한 내지 방문 등 어떠한 형태의 변경 내 유입과 접촉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변경지역 이내, 특히 만리장성 이내로 침략한 이적 왕조들이 자발적인 용하변의인 한화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왕부지가 이적을 변경 내지로의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겠다. 왕부지는 이적들이 중국 변경내로 난입하여 한족과 잡거하는 것이 중국에 큰 위협이라고 인식하였다. 왜냐하면, “夷狄들이 변경 내에 난입하여 살게 되면서, 중국을 익혀 업신여기게 되고, 그 사이를 엿보고 틈을 타서 필연적으로 방자하게 노략질하고 침탈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잠시의 난입이 아니라, 이적과 중국이 장기간 잡거하게 되면 중국의 재앙이 더욱 극심하게 된다고 그는 판단하였다.

이적이 들어와 섞여 살게 하면 그들과 함께 교역을 하게 되고, 장차 반듯이 그들과 서로 교류하게 될 것이며, 점차 그들과 혼인을 맺게 된다. 그들의 옷, 그들의 음식, 그들의 침실과 거처, 그들의 남녀가 대개 그 우둔하고 불초한 백성과 더불어 혼쾌히 술을 배불리 마시면서, 제멋대로 방탕하여 서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⁸⁵⁾

이와 같이 이적의 유입으로 교역·교류·혼인·풍습·생활습관 및 양식 등이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 성현들은) 그들 씨족(혈연)을 바로세우고, 그들의 결혼(혈연)을 구분하였으며, 그들의 도읍과 시골을 구분 지었고, 그들의 풍속을 제정하여, 그것을 유지함을 그들의 본성대로 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왕부지의 판단이다. 이와 같이 이적과 중국을 엄격히 구분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적이 백성들과 잡거하게 되면, 재앙은 더욱 극열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사나움과 문란함, 간략함과 휴식에 쉽게 움직이고, 예법의 제약을 두려워 하지만, 역시 교화의 흐름은 쉽게 무너지 막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⁸⁶⁾

이와 같은 이유로, 왕부지는 동한 광무제가 남선우를 변경 이대로 이주시키는 정책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광무제는 남선우가 투항하자 그들을 장성 이남인 西河美稷(산서성 일대)로 이주시켰는데, 이 일에 대해 왕부지는 “사람의 지극한 도리(人極)를 훼손시킨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 되었다”⁸⁷⁾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비단 그들은(남선우 집단) 오랑캐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를 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것을 익혀 점차 안주하게 되고, 풍속이 미혹되고, 혼인이 혼란(혈연)해지며, 복식이 음란해져(풍속), 오제 삼왕의 천하에 흘러 넘쳐 흩어지게 되고, 천자 부모의 큰 보물이 이적(非類)에게 넘어가서, 습관이 되어도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이익을 엿보고 그들이 가히 두려움을 보지 못하게 된다.....천년 이후까지 연속 되면 그가 누구의 종족인지(誰氏之族)를 망각하게 된다.⁸⁸⁾

85) 『讀通鑑論』, 272쪽.

86) 같은 책, 272쪽.

87) 『讀通鑑論』 권6, 248쪽.

88) 같은 책 248~249쪽.

이와 같이 이적이 한족과 잡거함으로써, 풍습·혈연 등이 혼란하게 되고, 중화 왕조의 권력이 이적에게 넘어가게 되어,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종족의 혈연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왕부지는 이적의 난입과 잡거를 반대하고 있다. 그가 『송론』에서 西夏의 李繼捧(980 - 982) 세력을 내지로 이주시켜, 그들로 하여금 송이 시행하는 제도를 염탐하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⁸⁹⁾

이적을 내지로 이주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이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일까? 그는 이적을 변경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최상의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東漢과 魏의 사이에, 羌, 胡, 鮮卑 등 종족이 변방 내에 섞여 살게 되어, 백성들에게 점차 근심이 되었는데, 그들을 옮겨 변경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萬世의 이익이다”⁹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적들을 중국인과 잡거하게 하면, 『徙戎論(이적을 변방 밖으로 이주시키는 책략)』으로 유명한 西晉 사람 郭欽(곽흠)과 江統(강통)이 우려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이적이 일으킨) 바람과 먼지(風塵)의 警報(경보)가 있게 되면, 오랑캐의 기병(胡騎)이 平陽(산서 臨汾)과 上黨(산서 長治)으로부터 삼일도 걸리지 않고 孟津(하남 孟津)에 이르게 되어, 北地(산서, 감숙, 영하 일대), 西河(산서 沁水), 太原(산서 태원), 馮翊(섬서성), 安定(닝하 자치구), 上郡(섬서성 일대)은 모두 夷狄의 정원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동진과 서진이 五胡에게 나라를 강탈당한 원인이 이적이 중원에 잡거했기 때문이라고 왕부지는 분석하고 있다.⁹¹⁾

이와 같이 이적에 의해 나라를 강탈당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왕부지는 후한 和帝시기 남선우를 변경 밖으로 이주시킨 정책을 극찬

89) 『宋論권2』 74쪽.

90) 『讀通鑑論』 권11, 431쪽.

91) 같은 책, 431쪽.

하고 있다. 즉

남선우가 漢에 투항하자, 광무제가 그들을 서하 변경 내에 두었다. 和帝 때에 이르러 竇憲이 변경 5천리를 넘어 북흉노를 크게 깨뜨리자, 북선우가 도망하였고, 그 남은 종족인 우서건(북선우)이 왕조를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袁安(동한 대신)과 任隗(동한 대신)가 틈을 타 삭막을 안정시키고자 하여, 남선우로 하여금 北庭(북흉노)에 반기를 들게 하고, 於除鞬(북흉노의 잔존세력)을 쫓아내어 그 옛집에 이주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萬世의 최고의 정책(長策)이다.⁹²⁾

남선우가 북쪽으로 가서 정권을 잡게 해 준 것이 최고의 정책인 이유로 그는 두 가지를 꼽고 있다. 하나는, 북흉노인 오제건에게 북흉노의 왕조를 세우지 못하게 한 것은 漢 왕조가 하나의 敵을 멸망시킨 것과 같은 것으로 중국의 대외로 위협을 떨친 것과 같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변방 안에 중국인과 잡거하던 남선우를 그들의 고향인 북흉노 지역으로 돌려보내서 흉노를 통일하게 하였으니, 남흉노의 입장에서는 漢나라의 은혜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길으로는 남흉노에게 흉노 통일이라는 명분을 주고, 실제로는 중국 내부에서 잡거하면서 근심거리가 되는 왕부지의 표현에 의하면 ‘중국에 심복의 쯤벌래’인 이적(남흉노)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내외의 방비가 아주 명확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면 그 후 오호십육국의 재앙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⁹³⁾

왕부지는 이적들을 변경 이내로 이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한편, 중국 내부의 문제로 이적과 결탁 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왕부지는 오호 16국 이후 원대에 이르기까지 천여 년 넘게 중화와 이적의 분쟁의 발단이 된 것으로 西晉의 장령인 王浚(252~314)이 선비족 수령인 무물진(務勿塵)과

92) 『讀通鑑論』 권7, 271쪽.

93) 같은 책, 271쪽.

결탁한 것을 그 시점으로 보고 있다.⁹⁴⁾ 또한, 그 후 西晉이 북방 이적의 힘을 빌려 강성해지고자 하였으나, 끝내 멸망당하게 된 것도 이적을 끌어 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⁹⁵⁾ 그 이유는 중국이 이적에게 원조를 요청하여, 이적이 중국 내지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이 틈을 타서 중국을 약탈하고 점거하게 되었으니, 이적에게 원조를 구하는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는 것이다.⁹⁶⁾ 흥미로운 것은, 이 실책으로 인한 중국에 가져온 재앙(禍)을 경중에 따라 왕부지는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의 경우 당 고조 이연이 돌궐의 군사를 빌려 그들을 내지로 들어와 반란을 진압하게 하였는데, 이 때 당이 빌린 돌궐 5백기의 군사는 단지 명의상으로 빌린 것에 불과하여 돌궐의 실질적이 공이 없었고, 중국에 미친 禍도 가장 가벼운 것이라 보고 있다.⁹⁷⁾ 둘째의 경우 오대십국의 石敬瑭(후진)이李克用(후당)을 멸망시킨 것은 전적으로 거란의 힘을 빌린 것이고, 송이 金나라를 빌려 遼를 멸망시킨 것과 송이 元을 빌려 金을 멸망시킨 것은 모두가 송은 이적에게서 콧김(鼻息)만 우러러 보았을 뿐이고, 이적들은 송의 존망 생사를 조종하는 결정권을 갖게 되어, 송에 미친 그 禍가 가장 무거웠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 숙종 때 당이 회흘의 군사를 빌려, 변경 내지로 들어와 안사의 난 잔존 반란세력을 진압하는데 회흘이 일조하게 하였는데, 이 때 마지막에 반란세력을 진압한 것은 15만 朔方군이었지 6천에 불과한 회흘의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당시 회흘이 중국에 가져온 화는 중간에 해당한 다는 것이다. 즉 회흘의 원조는 이연이 돌궐에게 명의 상의 원조를 요청한 것보다 실질적이 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禍도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회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일부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후진이 거란을, 송이 여진과 몽고

94) 『讀通鑑論』 권12, 443쪽.

95) 『讀通鑑論』 권12, 448쪽.

96) 『讀通鑑論』 권23, 866쪽.

97) 같은 책, 866~867쪽.

를 전적으로 의존한 것 보다는 그禍가 적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적을 이용하는 것은 적든 많은 모두가 화를 모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화의 적고 많음은 이적을 의존하는 경중에 정비례 한다는 것이 왕부지의 논리이다.⁹⁸⁾

이적과의 결탁뿐만 아니라, 왕부지는 정상적인 조공왕래, 그리고 중국과의 대외전쟁과 그로 인한 세폐지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왕부지는 이적들이 중국을 침략하고 유린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을 약탈하고자하는 확고한 야심이 있어서도 아니라, 중국이 이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이적에게 빌미를 준 것은 중국인들이 이로움을 탐하고 戰功을 탐하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이로움을 탐하는 것, 즉 중국인들이 이적들에게 재물과 뇌물을 탐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祭祀를 지내고 왕에 조근하라는 미명 하에, 중국의 관문을 열고 이적들을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내지에 들어온 이적들은 중국의 풍요로운 부귀를 보고 부러워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을 침략하려는 마음이 생겼으며, 끝내 침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거란과 여진이 모두 시작은 공물을 가지고 왔으나, 마지막은 침탈하여 멸망시켰다”라는 것을 그는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처음에 중국이 이적에게서 이로움(재물과 뇌물)을 탐해서 자초한 것이라는 것이다.⁹⁹⁾ 두 번째는 功을 탐하는 것, 즉 불모의 땅을 탐하고, 땅을 개척하고 멀리서 복종하게 하는 것을 功名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외 확장전쟁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확장전쟁의 결과는 승리하든 실패하든 중국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움을 가져다준다는 그는 보고 있다. 가령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이적들이 이를 틈타 침략하여 들어오게 되어, 중국에 해를 가져다주게 된다는 것

98) 같은 책, 867~868쪽.

99) 같은 책, 806쪽.

이다. 그 사례로 원나라가 일본을 정복에 실패한 것을 계기로 명나라 때에 침략을 받은 것을 들고 있다. 설사 중국이 승리한다 하여도, 음식과 양식 등 歲幣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나무를 베어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강에 교량을 놓고 어름을 건너 탄탄대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량과 도로건설은 중국이 이적으로 들어가는 길을 닦아 놓는 것이지만, 역으로 이적 역시 이 평탄한 교량과 도로를 통해 중국을 침략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설사 중국이 승리한다 하여도 중국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로움을 탐하든 전공을 탐하든 모두가 중국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¹⁰⁰⁾

요컨대 왕부지는 내지 중국인의 변경지역으로의 이주와 중국 내부문제로 이적과의 결탁을 반대하고 있고, 이적의 정상적 조공, 그리고 중국인의 이적 지역으로 대외전쟁을 통해 이적들이 변경 이내로 유입되는 것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적의 이주·결탁·조공, 그리고 대외전쟁은 이적이 내지로 들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중국에게 해를 끼치거나, 중국을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왕부지는 이적을 중국문화에 교화 혹은 동화 시키는 문제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물론 왕부지는 중화의식이 이적에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과 유가사상의 보편주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즉 그는 “君臣父子의 倫理와 詩書禮樂의 교화는 聖人이 어찌 넓은 천하(普天)와 온땅(率土)에 그것으로 沐浴(교화)시키고 싶지 않았게는가?”라 하여, 중화의 땅은 물론이고 이적의 땅(普天과 率土)에도 중화의 윤리와 유교의 교화를 이루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¹⁰¹⁾ 그러나 이러한 중화사상의 보편주의는 아직 시기상조(時之未至)라는 것이 왕부지의 판단이다. 이 시기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100) 같은 책, 806쪽.

101) 『讀通鑑論』 권3, 138쪽.

데, 첫 번째는 하늘의 보살핌이고(天所祐), 두 번째는 성인과 사람들의 인위적인 노력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하늘의 보살핌은 漢代부터 시작되어, 강소, 절강, 민남, 호남 등의 文教가 날로 흥성하고, 南海의 바다 끝과 전운(滇雲, 운남)의 땅 끝에 이르기 까지 중화사상의 핵심인 理學, 節義, 文章, 事功이 이미 보편화 되어 있다. 하지만

석경당(사타인, 후진)이 거란에 땅을 할양하고, 송나라 사람이 여진에게 땅을 버려두어, 기주(하북일대)지역 堯舜의 餘民들이 禽俗(이적의 풍속)으로 동화되었다(用夷變夏). (명대)실사 冠帶를 받들어 통일되었으나, 黨邪 醜正하여 환관과 더불어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으니,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喪하게 한 것이다.¹⁰²⁾

위와 같은 인위적인 측면에서, 북방의 지역은 거란·여진·몽고 등의 이적들의 침략과 약탈, 그리고 환관 등 한족들의 무능으로 인해 미개척 상태로 남아 있어 이 지역에 중화주의의 보편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왕부지의 판단이다.

중화와 이적이 보편주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서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근본적이 원인을 왕부지는 공간적 차이에서 찾고 있다. 즉 “夷狄과 諸夏는 그 강역으로 구분하고, 군자와 소인은 그 부류로서 구분하여,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엄격하지 않을 수 없다”¹⁰³⁾라고 하고 있다. 또한,

夷狄과 華夏는 태어난 곳이 다른 지역이고, 그 지역이 다르면, 그 氣가 다르다. 기운이 다르면 습속이 다르고, 습속이 다르면 이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다르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가운데에 또한 그들의 貴賤이 있고, 특히 지역 경계(地界)가 구분되고, 天氣가 다르게 된다면, 가히 혼란스럽지 않게

102) 같은 책 139쪽.

103) 『讀通鑑論』, 502쪽.

된다.¹⁰⁴⁾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적과 중국(제하와 화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공간을 의미하는 태어난 곳(所生)과 地界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공간적인 구역은 중국의 자연적이 형세(天地의 情, 혹은 天地의 形勢)가 모여져 공통된 공간적 구역(合爲一區)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기운(民氣)이 공통되게 느끼게 되고, 사람들이 풍속과 기질(風氣)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嘘吸), 태어난 기질(生質)들이 동일한 부류(壽類)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태어나 기질이 동일한 부류가 되게 되면, 사람들의 性情은 서로 공통된 소속감을 느끼고 반듯이 通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⁰⁵⁾ 이와 반대로 자연의 형세 즉 天氣가 다르면 태어난 기질(生質)이 다르고, 地氣가 다르면 풍속과 숭상하는 것이 다르게 된다고 그는 보고 있다.¹⁰⁶⁾ 이러한 이유로, 이적들은 그들의 생활양식과 습속 및 제도를 유지하였을 때가 가장 강성하고, 중국에도 해가 없다는 그는 판단하고 있다.

夷狄의 강성한 이유는, 그들의 法制가 소략하고, 居處와 衣食의 거칠고 사나워서, 그들의 용맹하고 사나운 기운을 키워서이다. 그들의 풍속을 고치지 않으면, 큰 이익이 있게 된다. 그리고 중국 역시 이로 인해 害를 모면하게 된다. ¹⁰⁷⁾

104) 『讀通鑑論』 권14, 『船山全書』(10책), 嶽麓書社(이하 『讀通鑑論』 약칭), 2011년, 502쪽.

105) 『讀通鑑論』 권3, 126쪽. 왕부지의 중화와 이적의 구분하는 척도로 지역과 자연환경을 주목한 연구로는 胡發貴, 『王夫之夷夏觀新論』, 18-19쪽 참고; 『劉新春, 『王夫之“夷夏之說”的精神內核』, 『船山學刊』제4기, 2003 호발귀, 유신춘 등은 지리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한편, 朱榮貴는 환경적인 요인과 다른 요인과의 인관관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朱榮貴, 앞의 논문, 529쪽 참고.)

106) 『讀通鑑論』 권2, 110쪽.

107) 『讀通鑑論』 권28, 1094쪽.

요컨대 중화와 이적의 기질·풍속·귀천의 가치·행동양식 등 문화적인 차이는 공간적이 구역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자기의 생활양식과 습속을 견지하게 되면, 이적은 강성하게 되고, 중국에는 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유가의 보편주의를 공간적 차이가 있는 이적에게 인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혼란스럽게 되고, 비록 잠시 중국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로 인해 이적이 쇠약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¹⁰⁸⁾ 이와 같은 이유로 왕부지는 중국과 이적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禮樂과 仁義의 존재여부를 제시하였고, 이 유가 가치기준은 중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이적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왕부지는 유가 원리인 忠仁義禮信 등 가치척도를 이적, 특히 만리장성 이북의 이적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들 유가 원리를 이적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적을 비판하는 소재로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춘추가설』과 『독통감론』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다.

中國이 夷狄에 대해서, 그를 협박하여도 不忠이 되지 않는다, 그의 틈을 타도 不義가 되지 않는다, 협박하여 저들을 능멸해도 不仁이 되지 않는다. 적과 금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¹⁰⁹⁾

만약 이적의 경우, 저들을 섬멸해도 不仁이 되지 않고, 그를 포로로 잡아도 無禮가 되지 않으며, 도모하여 그를 이겨도 無信이 되지 않으며, 그들의 위태로움을 틈타 그들을 합병해도 不義가 되지 않는다.¹¹⁰⁾

중국이 夷狄에 대해, 그를 섬멸하여도, 不仁이 되지 않고, 그를 속여도

108) 같은 책, 1094쪽.

109) 『春秋家說』, 190쪽.

110) 『春秋家說』, 233쪽.

不信이 되지 않으며, 그의 땅으로 배척하고 그의 재물 빼앗아도 不義가 아니다. 만약 함께 전쟁을 하여 저들을 반듯이 패배시키고, 저들을 섬멸하여 우리 백성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仁이라 부른다.111)

夷狄은 우리 族類가 아니고, 우리를 해치니 저들을 붙잡아 주살한다, 즉 많이 죽여도 나의 仁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112)

이적이 이미 변방을 넘어와 中夏의 禍가 된 이상, 저들을 滅하여도, 不仁이 되지 않고, 저들을 빼앗아도 不義가 되지 않으면, 저들을 몰래보는 것도 不信이 되지 않는다.113)

요컨대 이적들이 변방을 넘어와 중국에 해를 끼치고 화가 된다면, 변방을 넘어오는 이적을 섬멸하고, 붙잡아 주살하여도 不仁이 되는 것도 아니고 仁을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자국의 백성을 온전하게 보전한 仁이 된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이적을 속이는 것은 不信이 아니라, 오히려 信이 되고, 이적을 협박하는 것도 不忠이 되는 것이 아니라 忠이 되는 것이며, 이적을 포로로 잡는 것도 禮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왕부지는 이적들이 중화의 문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스스로가 한화정책인 用夏變夷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 문제는 중국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적들이 자발적으로

111) 『春秋家說』, 299쪽. 이외에 왕부지의 이와 같은 논리는 『春秋家說』(174, 233쪽)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적들의 不仁, 不信, 不義, 無禮 등의 비판은 도덕적·문화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변방 이남으로 침략한 이적에 대해 섬멸·살해·포로·약탈·정탐 등 전쟁 중 실질적인 군사 활동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변방 이내로 침략해 오는 이적에 대해 하는 것이지, 침략하지 않는 이적에 대해서는 왕부지는 불간섭, 상호 존중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112) 『讀通鑑論』 권12, 450쪽.

113) 『讀通鑑論』 922쪽, 이외에 『讀通鑑論』(155쪽 1083, 1135, 1137쪽)에서도 같은 논리를 확인 할 수 있다.

중화의식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어서 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왕부지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왕부지는 오호 십육국 가운데 後趙의 창시자인 石勒(석락)과 북위 효문제의 한화정책을 목욕한 원숭이에게 모자를 쓰게 하고, 원숭이를 가리켜 나무를 타게 하는 꼴로 이적이 중화로 동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¹¹⁴⁾ 왜냐하면,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 아무리 치장하고 변장하여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즉 “목욕한 원숭이에게 모자(冠)를 씌워 주면, 얼핏 보기에 사람 같아 보이나, 조금 지나면 사람과 유사한 것이 없게 된다”¹¹⁵⁾고 하였고, 또 “목욕한 원숭이에게 모자를 씌우는데, 모자가 낡으면 원숭이는 여전히

114) 왕부지가 이적의 한화정책을 원숭이를 교화시키는 것으로 비유한 문장은 여러 군데에서 보인다. 『春秋家說』, 229쪽; 『讀通鑑論』, 479, 518, 646, 647, 669쪽. 기실 이적을 원숭이에 비유하여 사람과 이적이 서로 동화 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견해는 주자의 언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朱子는 맹자가 제기한 用夏變夷라는 문화전파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이적은 중화에 동화 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사람에게는 가려져 막혀 있는 것이 뚫리게 할 수 있는 理를 가지고 있다. 금수에게도 역시 이 性이 있다. 다만 그들의 形體에 구애받아 타고나면서부터 가려져 막힌 것이 심해지고, 뚫려진 곳이 없게 된다. 호랑이와 이리가 仁하고, 승냥이와 수달이 제사를 지내며, 벌과 개미가 義로운 것은, 오히려 이러한 것이 겨우 뚫린 것일 뿐으로 벌어진 틈의 한줄기 빛과 같은 것이다. 원숭이의 형상은 사람과 비슷하여 타물보다 가장 영특하지만 단지 말을 하지 못할 뿐이다. 夷狄은 바로 사람과 이적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끝내 고치기 어렵다.([宋]黎靖德, 『朱子語類·性理1』 卷4, 明成化九年陳煒刻本. 참고) 주자는 이적이 원숭이에 비해 언어를 구사한 측면에서 우월하지만, 원숭이가 자기의 본성을 고치기 어려운 것처럼, 이적 역시 가려 막혀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뚫리게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주자는 중화와 이적은 서로 교화 혹은 융합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왕부지의 이적을 원숭이에 비유하여 융화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자의 논리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근대 이후 반청혁명을 일으킨 태평천국의 격문에서도 이적과 원숭이를 비유하기도 하였다. 즉 “중국인은 중국인의 의복과 갓이 있는데, 만주인이 별도로 정대(頂戴-주옥으로 꾸민 모자), 오랑캐 복장과 원숭이 모자를 쓰게 하여, 중국의 이전의 복장과 갓을 파괴하였다.(楊秀清·蕭朝貴, 『奉天討胡檄布四方』, 太平天國博物館編, 『太平天國印書』, 江蘇人民出版社, 1979, 109쪽.)

115) 『春秋家說』 권중, 229쪽.

원숭이고, 또한 원숭이가 원숭이가 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또한 가히 큰 웃음거리가 아니겠는가?”라 하여 그는 인간과 원숭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적에게 투항한 한족 유학자 등에 의한 한화정책을 실시하는 것 역시 사람이 원숭이를 치장하는 것 같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원대의) 허형(許衡, 1209~1281, 우집(虞集, 1272~1348)) 등이 聖人의 道를 통해 목욕시킨 원숭이에게 모자를 쓰게 하니, 천하에 道를 손상시켰다”¹¹⁶⁾라 하여 이적인 정복왕조(=원숭이)가 한화정책(=목욕시켜 모자를 쓰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천하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도통을 해치는 행위 일 뿐만 아니라 이적의 멸망을 자초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道統이 빼앗기게 되면 목욕한 원숭이가 모자를 쓰고, 원숭이를 가리켜 나무를 타게 하는 것으로, 명분을 주장하면서 이익을 훔치는 꼴로, 夷狄과 盜賊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멋스러운 문장을 가지고 성현을 만들고, 제멋대로 요망한 짓을 하게 되니 바야흐로 장차 선왕의 道를 지킴으로서 천하의 교화를 이루었다고 태연하게 말한다. 그러나 하늘의 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¹¹⁷⁾

같은 이유로, 한족 유학자인 桑維翰(899~947, 거란에 투항한 유학자) 姚樞(1201~1278, 몽고에 투항한 유학자) 등에 의한 한화정책 역시 정통적인 중화사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하고 있다.¹¹⁸⁾ 이와 같이 이적들의 자발적인 한화정책이든 투항한 한족 유학자들에 의한 한화정책이든 이적

116) 『讀通鑑論』 권28 1097쪽. 이외에도 이것이 진실로 이적, 도적, 요망한 정성과 부합하여, 원숭이를 나무에 타게하고 모자를 쓰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영예와 이익을 바랬으니 진실로 그들이 마땅히 그런 것이다.(『讀通鑑論』, 480쪽).

117) 『讀通鑑論』 권13, 479쪽.

118) 『讀通鑑論』, 538, 569, 647쪽.

과 중화의 문화를 융합하려는 시도를 그는 마치 당나귀와 말의 중간 잡종인 노새의 처지에 비유하여, “아버지(수컷) 당나귀와 어머니(암컷) 말이 낳은 것은 노새인데, 노새는 낳는 것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¹¹⁹⁾ 즉 서로 상이한 문화를 인위적으로 융합 혹은 결합하는 것은 중화의 정수가 아니라 노새라는 중간잡종이 생기는 것이고, 잡종인 노새는 중화 문화를 전승하여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새가 생식능력이 없어 번식할 수 없는 것처럼 중화 문화를 후세에 전승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종말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왕부지는 중국인과 이적간의 어떠한 인적왕래, 문화적 교류와 융합을 부정하는 동시에, 이적과 중화의 관계설정에 최적의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상호불가침과 상호존중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왕 노릇하는 사람은 夷狄에 대해서, 그들이 폭력을 행하여 오면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을 멀리하여, 각자가 그 처한 바에 편안하고, 나는 너를 침탈하지 않고, 후에 너는 나를 침탈하지 않게 된다.¹²⁰⁾

이와 같이, 이적과 중화의 불가침 원칙을 최적의 정책으로 인식한 왕부지는 중국이 이적에 대한 간섭정치와 강역확장 전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중화의 이적에 대한 대해 그는 ‘不治’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 노릇 하는 사람은 이적을 다스리지 않는다,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림은 없다. 다스림이 없으면 비록 부모와 군주를 죽여도, 그야말로 다스리지 않는다. 또한, 누구와 더불어 그 무거움과 가벼움을 가리겠는가?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요황(변방)의 밖을 말함이다. 소리가 서로 알려지지 않고,

119) 『讀通鑑論』, 518쪽.

120) 『讀通鑑論』, 286쪽.

자취가 서로 미치지 않아 그들의 흥성과 그들의 喪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周나라는 땅을 분할하여 楚에 봉하고, 服을 내려 楚에 작위를 주어, 초와 중국은 진실로 더불어서 盟會와 朝覲을 묻는 일을 경험하였다. 그런 고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말은 한대에 묵특(홍노), 송대의 완안옹(完顔雍: 금나라 세종)이 그것이다. 楚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¹²¹⁾

『논어』에서 “왕은 이적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는, 사막 이북, 하, 조(河、洮) 이서, 일남(日南)의 이남, 요해(遼海) 이동을 말하는 것으로, 하늘에는 다른 기운 있고, 땅에는 다른 이치가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다른 기질 있고, 사물에는 다른 산물이 있으며, 각기 그들이 태어난 곳에 자라고, 그들이 키워진 곳에서 키우며, 그들의 군장을 군장으로 삼고, 그들의 부락을 부락으로 하여, 저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고, 우리가 저들에게 염려되지 않으며, 각기 그들의 강기에 편안하나 서로 업신여기지 않을 뿐이다.¹²²⁾

요컨대 왕부지가 말하는 이적에 대한 불간섭과 상대방의 기질·산물·양육 및 정치제도·사회단체·강기에 대한 상호존중은 楚나라를 포함한 선진시대 이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한 이후, 홍노·거란·몽고 등 변방의 이적에 대해 실행하는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사막 이북, 하조(河洮, 황하 상류 감숙성 일대) 이서, 일남(日南)의 이남, 요해(遼海) 이동’이 불간섭 지역이고, 이 변강지역 이내는 중국이 관할 할 지역이다. 다르게 말하면, “中夏가 夷狄을 다스리나, 九州의 밖에서 실천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것이 九州 이내에서 실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뜻이다”¹²³⁾라는 것이다.

그가 중국이 변방을 넘어 이적을 침략하여 강역확장에 대해 부정적이

121) 『春秋家說』, 202~203쪽.

122) 『宋論』, 174쪽.

123) 같은 책, 175쪽.

입장을 취한 것 역시 이적에 대한 불간섭과 상호존중의 원칙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그는 한무제와 수양제의 북방의 강역확대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漢이 막북에 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隋는 海東을 넘어, 자기를 황폐하게 하여 밖에서 강한 것을 찾았으니, 王道와는 위배되어 禍를 재촉하였다. 다스릴 곳이 아닌 것을 다스리면 스스로 황폐해지는 것이다. 다스려야 곳을 다스리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¹²⁴⁾

한무제는 사막을 넘어 서역을 정복하여 군현을 설치하여 다스렸고, 수양제는 바다(즉 遼海)를 건너 고구려를 침략한 것은 王道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이들은 다스릴 곳이 아닌 곳을 다스린 것이어서 스스로 황폐해진 것이라는 것이 왕부의 분석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한 한무제 시기 장건의 서역개통에 대해서 그는 '장건이 그의 재능과 힘을 믿고 강제로 그것(서역)을 개통하였으니, 진실로 天地의 기강을 어지럽힌 것이다'¹²⁵⁾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한무제와 더불어 대외정복전쟁을 감행한 수양제에 대한 평가도 '탐욕과 완고함' 때문이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¹²⁶⁾

맺음말

본고는 명말청초의 왕부지의 중화인식을 근대적 문화적 민족주의 요소의 기준에서, 왕부지가 설정한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여러 요인(공간·

124) 『春秋世論』 권1, 391쪽. 이와 같은 논리는 『讀通鑑論』(권26, 992쪽)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125) 『讀通鑑論』 권3, 138쪽.

126) 『春秋世論』 권1, 391쪽.

혈통·습속·집단·문화 등), 그리고 그가 설계한 중국인과 이적에 대해 이주, 그리고 문화융합과 문화갈등에 대한 그의 입장을 짚어보았다.

연구결과, 왕부지가 설계한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근대 문화적 민족주의 요소와 유사하게 시간·공간·혈연·지식 문화 등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그는 언어·습관·기질·습성·행동양식 등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시간·공간·혈연·문화 등 요인에 비해 소략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시간적인 요인으로, 왕부지는 선진시대와 진한 이후로 구분하여, 선진시대에 등장하는 용적과 이적 들을 ‘만세’ 혹은 ‘진한 이후의 중국의 근심’이 된 이적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진한 이후 등장하는 흉노·선비·돌궐·토번·사타·거란·여진·몽고 등은 ‘구주’를 침략하거나 점거했던 진정한 이적으로 보고 있다. 공간적인 요인으로, 왕부지는 변경의 내외로 구분하여, 구주·중구·중국 등으로 묘사된 변경 내(塞內)의 공간적 범주는, 북단은 대체로 만리장성 이남과 일치하고, 남단은 광서·광둥 이남과 일치하며, 동단은 광둥·복건·절강·산둥·하북의 동쪽인 동해와 일치하고, 서단은 감숙·사천·섬서·귀주·운남의 서쪽과 대체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혈연적 요인으로, 그는 賜姓과 성씨 사칭(冒姓) 및 혼인 등 혈연과 혈통을 강조하는 순혈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사성과 성씨 사칭을 통해 건립된 이적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하였고, 이적과의 혼인과 잡거로 인한 혈연·풍습 등 혈연적 정체성의 상실의 위험성에 경고하였다. 문화적 요인으로, 그는 문명(衣冠)의 禮樂과 仁義의 존재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예약과 인의를 가진 사람이 중화이고, 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왕부지는 시간·공간·집단·혈통·문화 등의 요인으로 중화와 이적을 엄격히 구분하는 동시에, 중화와 이적을 변경 지역으로의 이주 혹은 유입시키는 문제와 변경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과 이적에 대한 문

화융합(用夏變夷)을 실행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들이 대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내지 중국인의 변강으로의 이주시키려는 왕부지의 출발점은 진한 이래 북방 이적들의 침략과 약탈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대비하기 위한 방책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그는 내지의 중국인들이 진한 이래로 개설된 변군 혹은 변경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주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이주정책이 막대한 비용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변방의 안정과 백성의 구제, 그리고 용하변이라는 교화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내지 중국인의 변방지역으로 이주정책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문화융합의 측면에서, 중국 문화로의 교화와 동화의 대상은 그의 중화사상에 의거하여, 시간적과 공간적으로 선진시대 구주이내에 출생하여 활약하던 모든 이적을 대상으로 하고 진한 이후 새롭게 개척된 변군지역만을 포함하고 있고, 변경 밖에 거주하여 중국에 위협을 가하거나 중국을 점거한 흉노·거란 등 이적들은 배제하고 있다. 문화융합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는 복건·광둥은 물론 중국의 남부와 서부의 변경지역에 군현설치와 중화로서 이적을 변화시키는 用夏變夷를 실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변경지역의 민생안정과 구제정책이고, 궁극적으로는 변방을 튼튼하게 하는 변방강화 정책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다음으로, 변경 밖 이적들이 변경 내의 이주와 유입, 그리고 변경지역 이내로 침략한 이적 왕조들이 자발적인 용하변의인 한화정책에 대한 왕부지의 입장을 짚어 보았다. 이적과 중국의 인적왕래의 측면에서, 왕부지는 이적들이 변경지역 이내로 이주와 중국 내부문제로 이적과의 결탁을 반대하고 있고, 이적의 정상적 조공왕래, 그리고 중국인의 이적 지역으로 대외 전쟁을 통해 이적들이 변경 이내로 유입되는 것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적의 이주·결탁·조공, 그리고 대외전쟁은 이적이 내지

로 들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중국에게 해를 끼치거나, 중국을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화융합의 측면에서, 그는 중화와 이적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지 융합 혹은 결합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같은 이유로, 그는 이적 왕조의 자발적 한화정책이든 이적에게 투항한 한족 유학자들에 의한 한화정책이든 유가사상으로의 교화와 동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가 제시한 중화와 이적의 최상의 관계설정은 상호불가침과 상호존중의 원칙이다. 상호존중이란 이적이 침략해 오면 그들을 정벌하되, 평화시기에는 이적과 멀리하며, 상대방의 기질·산물·양육방식 및 정치제도·강기 등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불가침이란 “저들(이적)이 우리(중국)를 침략하지 않고, 우리(중국)가 저들(이적)에게 염려되지 않게”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왕부지의 중화의식과 변경지역으로 이주와 문화융합에 관한 논의는 많은 부분이 근대적이 민족국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왕부지의 중화사상이 근대 민족주의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그가 말하는 공간적 중국의 범주는 근대 영토주권과 같이 고정불변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대적 영토개념으로 볼 수 없다. 가령,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왕부지는 중국이 변방을 넘어 이적을 침략하여 강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한무제와 수양제의 대외확장과 장건의 서역개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그는 당대에 서역이 당의 강역이 되는 것을 긍정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다.

西域은 漢대에 쓸데없는 흑(군더더기 땅)이었다. 唐代에는 손가락의 보 호대가 되었다. 時勢가 다르니 한마디의 말을 고집할 수 없음이 이와 같은 것이 있다. 흉노의 대세력은 운중(云中) 이북에 있고 그들은 남으로 과(瓜,

감속성 안만동남), 사(沙, 감속성 돈황 서)를 어지럽게 하여, 한은 화와 황수를 가로막았으나, 그들에게 편리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서역은 각기 君長이 있었고, 모여 있는 무리들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단지 성곽을 보호하면서, 뇌물을 탐하고 위엄을 두려워하면, 양쪽으로 오랑캐와 한왕조에 어깨를 드러내고 있었으나, 모두에게 경중이 되기에 부족하였다. 그런고로 쓸데없는 흑이었다. 당에 이르러, 安西가 되고, 北庭이 되어, 이미 중국의 판도에 들어왔다.¹²⁷⁾

이처럼 그의 논리에 의하면, 시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강역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 강역관은 근대적 영토주권의 개념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국과 이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영토·혈연·문화·습속 등의 요인을 제시한 것은 근대 중국인들이 서구 민족주의를 받아들이는데 가교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장태염과 유사배 등 청말 혁명파의 사상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왕부지의 중화사상은 명말 청초의 고염무, 황중희 등 당시의 華夷觀과 다르게 근대적 민족주의와의 상당부분 연관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왕부지, 문화적민족주의, 중화의식, 중화, 이적, 이주, 화이관, 용하변이, 문화융합

(논문투고 : 2013.5.10 / 논문심사완료 : 2013.5.27 / 논문게재 확정일 : 2013.5.31)

127) 『讀通鑑論』 권3, 926쪽.

참고문헌

- 王夫之, 『讀通鑑論』 권14, 『船山全書』(10책), 嶽麓書社, 2011년.
- 王夫之, 『春秋家說』 권상, 『船山全書』(5책), 嶽麓書社, 2011년.
- 王夫之, 『春秋稗疏』 권상, 『船山全書』(5책), 嶽麓書社, 2011년.
- 王夫之, 『春秋世論』, 『船山全書』(5책), 嶽麓書社, 2011년.
- 王夫之, 『四書訓義』 권33, 『船山全書』(8책), 嶽麓書社, 2011.
- 王夫之, 『宋論』 권6, 『船山全書』(11책), 嶽麓書社, 2011년.
- 王夫之, 『黃書』(宰制편) 제3, 『船山全書』(12책), 嶽麓書社, 2011년/桓寬, 『鹽鐵論·國疾』
- 鄭思肖, 『古今正統大論』, 饒宗頤, 『中國史學史上之正統論』, 上海遠東出版社, 1996.
- 班固, 『漢書·西域』, 券96上, 清乾隆武英殿刻本.
- 范曄, 『後漢書』(烏桓鮮卑列傳), 권80, 百衲本宋紹熙刻本\
- 袁宏, 『後漢紀』, 四部叢刊景明嘉靖刻本.
- 梁啓超, 『清代學術概論』, 『양계초전집』(5책), 北京出版社, 1999 수록.
- 劉師培, 『攘書』, 朱維錚 편, 『劉師培辛亥前文選』, 三聯書店, 1998 수록.
- 湯志鈞, 『章太炎政論選集』 상책, 中華書局, 1977.
- 楊秀清·蕭朝貴, 『奉天討胡檄布四方』, 太平天國博物館編, 『太平天國印書』, 江蘇人民出版社, 1979.
- 宮哲兵, 『試論王船山晚年民族觀王夫之』, 『求索』(增刊), 1982년.
- 唐林麗, 『晚清時期的民族主義與民族國家建構』, 『科教文匯』(제8기), 2007.
- 鄧樂群, 『『黃書』與辛亥革命』, 南通師範大學學報, 2001.
- 李壽章, 『王船山的愛國主義思想探析』, 『華中師範大學學報』(제2기), 1994
- 莫秀珍, 『王夫之的民族文化觀』(湖南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 徐泰來, 「船山是愛國主義者」, 『船山學報』(제2기), 1984.
- 蕭敏如, 「清初遺民《春秋》學中的民族意識——以王夫之、顧炎武爲主的考察」, 『臺北大學中文學報』(제5기), 2008.
- 沈松橋, 「我以我血薦軒輊-黃帝神話與晚清的國族建構」, 『臺灣社會研究季刊』(제28기), 1997.
- 沈松橋, 「振大漢之天聲-民族英雄系譜與晚清的國族想像」,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集刊』(제33기), 2000.
- 劉立夫, 「王夫之夷夏之辨與民族愛國主義」, 『衡陽師範學院學報』(제5기), 2010.
- 劉新春, 「王夫之“夷夏之說”的精神內核」, 『船山學刊』(제4기), 2003.
- 劉海濤, 「論“族群”建構與“民族國家”認同」, 『貴州民族研究』(제4기), 2006.
- 陸復初, 『王船山學案』, 湖北人民出版社, 1987
- 張學智, 「王夫之『春秋』學中的「華夷之辨」」, 『中國文化研究』, 2005.
- 朱滋源、蔣秋華、朱榮貴 등, 「王夫之民族思想重觀」, 『哲學與文化』(20권 제9기), 1993
- 朱榮貴, 「王夫之「民族主義」思想商榷」, 『中國文哲研究集刊』 1994년.
- 陳家鼎, 「王船山愛國主義思想論略」, 『湘潭大學學報』(제1기), 1986.
- 陳遠寧, 『中國古代政治觀的批評總論-王船山政治觀研究』, 湖南出版社, 1992
- 彭大成, 「船山愛國主義的特點及其影響」, 『船山學報』(제2기), 1984
- 胡發貴, 「王夫之夷夏觀新論」, 『船山學刊』(제1기), 2005.
- 胡發貴, 「王夫之夷夏觀」, 『學海』, 1997.
- 侯外廬, 『中國思想通史』 第5卷, 155~177쪽, 295~300쪽.
- 聶守忠, 「談船山對民族問題的看法」, 『衡陽師專學報』, 1986.
- 권중달, 「王夫之의 史論」, 『중앙사론』 제2집, 1975.
- 권중달, 『中國近世思想史研究』, 중앙대학교출판, 1998,
- 김경호, 「漢代 邊境地域에 대한 儒敎理念의 普及과 그 이념」, 『중국사연

- 구』(제17집), 2002.
- 김경호, 『漢代 邊郡支配의 普遍的 원리와 그 성격』, 『동양사연구』(제91집), 2005.
- 민두기, 『中國의 傳統的 政治像-封建郡縣論議를 중심으로』; 『清代 封建論의 近代的 變貌-清末地方自治論으로의 傾斜와 紳士層』(민두기, 『중국근대사연구』, 一潮閣(1973)년에 수록)
- 박상수, 『중국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박상수 등 공저,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고구려연구재단, 2005.
- 안재호, 『王夫之의 夷夏觀 試探』, 『동양철학연구』 31, 2002년.
- 안재호, 『왕부지철학』, 도서출판 문사철, 2011.
- 우심화, 『왕부지의 華夷觀』, 『신학과 선교』 제3집, 1999.
- 우심화, 『淸初抗淸漢人的華夷觀研究-以王夫之, 顧炎武, 傅山爲中心』 북경대학박사학위논문, 1999년
- 우심화, 『試析王夫之的“華夷”觀』, 朱誠如, 『明清論叢』 제5집, 2004.
- 이춘복, 『청대 만주분위의 민족정책과 문화충돌』,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2집, 2012.
- 이춘복, 『청대 전기 華夷觀과 청조의 滿漢 융합』,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4집, 2013.
- 이춘복, 『청말 중국 근대 ‘民族’개념 담론 연구』, 『중앙사론』 제29집, 2009.
- 정면, 『後漢代 南夷 지역의 변군 지배와 ‘南中’·‘南人’ 개념의 출현』, 『중국사연구』 (제49집), 2007.
- 王柯 지음/김정희 역, 『민족과 국가-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고구려연구재단, 2005.
-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의 역대 長城발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동북아역사재단, 2012.
- 馬大正 지음/조세현 역, 『중국의 국경·영토 인식- 20세기 중국의 변장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2004.

蕭公權 著 최명·손문호 등 역, 『中國政治思想史』,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90~981쪽 참조.

溝口雄三, 『中國民權思想的特色』,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中國現代
化論文集』,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1991), 343~362쪽 수록.

水原重光著, 『王夫之の民族思想』, 『大分大學教育學部研究紀要』(제3권 제
5기), 1970.

齊藤禎著, 『王夫之の『華夷』思想について』, 『山口大學文學會志』(제41기),
1990.

Stephen R. Platt, *Hunanese Nationalism and the Revival of Wang
Fuzhi, 1839-1923*, Yale University, 2004

Mingran Tan, *Crisis and Hermeneutics: Wang Fuzhi's Interpretation
of Confucian Classics in a Time of Radical Change from Ming
to Qing Dynasty* University of Toronto, 2010

王夫之의 中華認識及其對移住與文化融合의 二律背反

李 春 馥

在批判的吸收前人研究成果的基礎上, 作者關於王夫之的中華認識及其對移住與文化融合的二律背反問題進行了深入探討。筆者基本上具有王夫之的中華思想與清末民族主義思想有着一脈相承的連繫。基於如此認識, 以近代文化民族主義的構成要因為尺度, 對於王夫之以空間·時間·血緣·習俗·集團·文化為尺度所區分的華夷之辨和其對於華夷的徙民和文化融合持各不相同立場進行了分析和檢討。

通過研究結果, 我們觀察到王夫之的華夷峻別具有了類似於包涵了空間·血緣·習俗·集團·文化等中國近代文化民族主義之要因。就其時間而言, 王將先秦的夷狄和秦漢以後的夷狄嚴格區分開來, 認為先秦的戎狄和夷狄並不是‘天下萬世’或秦漢以下為中國患者的夷狄, 而是暫時的夷狄(中國之流民); 秦漢以後所出現的匈奴·鮮卑·突厥·奚·契丹·女真·蒙古才是蹂躪並占據九州的真夷狄。就其空間範疇而言, 王將邊疆以塞內和塞外嚴格區分開來, 其所說的中國·中區·九州等塞內有如下, 北端大體上一致於萬里長書以內: 南端大體上一致於廣西·廣東: 東端大體上一致於廣東·福建·浙江·山東·下北以東的滯海; 西端大體上一致於甘肅四川陝西貴州雲南以西。其次, 就其血緣而言, 王將華夷的血緣上所區分的尺度放在中原王朝對於夷狄集團的賜姓, 冒姓以及與夷狄的婚姻。以此為尺度, 王批判了夷狄王朝的正統性, 警告了由華夷的雜居所生的血緣·風習·文化等認同的混亂和漢族國家的危害。最後, 就其文化而言, 王將文化所區分的尺度放在具有衣冠的仁義禮樂與否, 認定認中華具備了此尺度, 與此相反, 夷狄不具備此尺度。

與此同時，通過研究，我們看到了王夫之對於秦漢以後中華和夷狄的徙民和用夏變夷問題提出截然不同的立場。首先，從秦漢以來因夷狄亂入中國而蹂躪和掠奪所產生的警戒心和懼怕心出發，王夫之提出內地中國人遷移到邊疆或秦漢以來所設置的邊郡的徙民的政策，以便邊防強化和豫防夷狄入侵。就用夏變夷而言，王所設想的王化對象，在時間上包涵了先秦時代所稱的夷狄和流民，在空間上包涵了邊疆和九州以內，而排斥秦漢以來在塞外威脅中國的匈奴·契丹等北方族群。就其具體方法而言，王提出了對於包括福建·廣東等中國的東南地區和邊疆地域施行以中華為中心的用夏變夷的教化。與此同時，王提出該地域設置郡縣，並採取安定民生和救濟等的適當政策，將其看做堅實邊防的強化措置。

最後，筆者檢討了王夫之對於秦漢以後在塞外的夷狄遷移到境內的徙民和各種流入以及對夷狄的用夏變夷如何處理問題。就夷狄在境內的人的往來而言，無論夷狄遷移到境內的移住，還是因中國內部反亂所產生的結盟，對於任何形態夷狄的境內流入王都採取了一概否定的態度。不僅如此，對於夷狄的朝貢往來和因中國的對外戰爭的結果流入到境內也王都持了堅決反對的立場，以便事先豫防夷狄乘流入到境內的期會來侵害和蹂躪中國而最終導致中國的滅亡。對於夷狄的用夏變夷而言，王不將秦漢以來夷狄看做用夏變夷的教化對象。因為如此，無論夷狄王朝的任何漢化政策還是和投降的漢族文人在夷狄所實行的教化和同化，王將這些漢化政策比喻成“夫驢母馬，其生其為騾，騾則生絕矣，上雜而而類不延”，進而其對於夷狄的任何漢化政策從根本上採取否定立場。作為中華和夷狄的最好關係，王提出了相好不可侵和相互尊重的原則。相好不可侵就是他所設的“彼無我侵，我無彼虞，各安其紀而不相瀆”的原則，相互尊重意味着他所設的“王者之於夷狄，暴則懲之，順則遠之，各安其所，我不爾侵，而後爾不我虐”的原則。

關鍵詞：王夫之，文化的民族主義，中華認識，中華，夷狄，移住，華夷觀，用夏變夷，文化融合